

장학월보

2011
제219호(통권438호)

5

- 장학특집 / 현장지원 중심 컨설팅 장학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초대석 / 학습클리닉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Dream Maker
꿈 나르미
경남교육



2011 경상남도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40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경상남도에서 열립니다

2011. 5. 28 ~ 5. 31 (4일간)

경상남도 일원 (주개최지 : 진주시)

대회운영방향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경남교육의 우수성 홍보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 개최

완벽한 대회준비

대회분위기 고조

쾌적한 환경정비

경남 교육가족의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

대회슬로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2011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5 제219호(통권 438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교육 칼럼

08 **특집 /
현장지원
중심 컨설팅
장학**

26 앞서가는 경남교육

28 좋은 수업 다지기

34 교육정보

40 명품학교, 명품교육

56 전문가 초대석

58 참여마당

66 향기나는 서가

68 문화이야기

69 시상갤러리

• 교육과정 정상화, 으뜸 경남교육의 필수요건입니다 / 고영진

• 컨설팅 장학의 성패는 참여다 / 문오권

• 경남교육청의 학교 컨설팅 장학 방향 / 강대룡

• 컨설팅 장학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 / 곽경희

• 수업 안목 함께 키우는 동료 수업컨설팅 / 황영란

• 학습자 배움 중심의 토론 수업을 통한 수업 컨설팅 사례 / 이미정

•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자율형 공립고 운영 / 이남영

• Rhythm UP, English UP / 전효식

• 배움이 점프(Jump)하는 수업 만들기 / 장운정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영국의 독서 교육 / 구현숙

• '폐교의 위기를 딛고 일어난 학교'

•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희망' 울산교육 / 정병진

• 창원 삼계초, 꿈나리미 학교를 향한

• 三溪삼계 三技삼기 三-Up삼업 / 노현영

• 풍호명품제와 재능기부자와 함께하는 풍호체험활동 / 권성훈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정한글교실」 운영 / 김선희

• 꿈과 희망을 키우는 명품학교 김해분성고등학교 / 정재기

•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방법도 배워야 하나요? / 변경오

• 교 원 - 타자(他者), 축복인가? 지옥인가? / 김주영

- 독서는 정신의 근육을 단련하는 길 / 백중기

• 학부모 - 엄마품 한사랑 도서실 / 천경림

• 학 생 - 선생님 사랑 / 최서연

• '호모 코레아니쿠스'를 읽고 / 조현우

• 쇼팽 혁명 / 윤소영

• 마음의 풍경 / 신영숙

▶ 표지사진 - 박준일(구산초등학교구서분교장)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6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5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5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교육과정 정상화, 으뜸 경남교육의 필수요건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5월에 우리 교육현장도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국가발전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한국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며, 미국교육의 변화를 모색한 것은 이러한 한국 발전의 역사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교육방법과 정책들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네트워크 글로벌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는 평생 동안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창조해가는 교육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경남의 학령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남의 미래는 이러한 교육 변화를 적극 수용한 교육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요구와 개인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은 어느 때보다도 학교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창의적인 경영정책이 중요하며,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정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노력해 나가는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 운영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결집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일 것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학교장의 창의 경영과 교직원의 전문성이 자율적으로 발휘되고,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되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남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과정과 결과를 이원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더욱 매진하여 교육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경남교육의 비상을 꿈꾸며 으뜸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1. 5.

경상남도교육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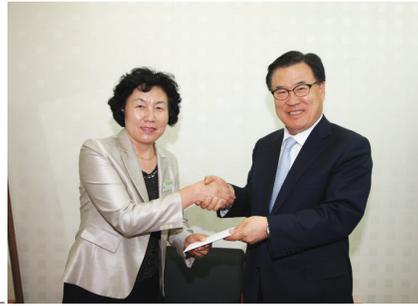




01



02



04



03



05



06

- 01 하동교육지원청 청사 개청식
- 02 제44회 과학의 날 기념식
- 03 일본 지진 돕기 성금 전달
- 04 「경남의 산」 출판 수입금 전달-하동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집
- 05 EBS교육멘토링 발대식
- 06 주부교실 한마음대회 급식 성금 전달



07



08



10



09



11

- 07 경남교육연구정보원 - 경남사이버영재교육원 입학식
- 08 경남유아교육원 - 학부모설명회
- 09 김해도서관 - 그림책 읽어주는 Mom
- 10 산청교육지원청 - 컨설팅 장학 학교업무 담당교사 협의회
- 11 통영교육지원청 - 통영아영수련원 입소식
- 12 진주교육지원청 - 찾아가는 체험활동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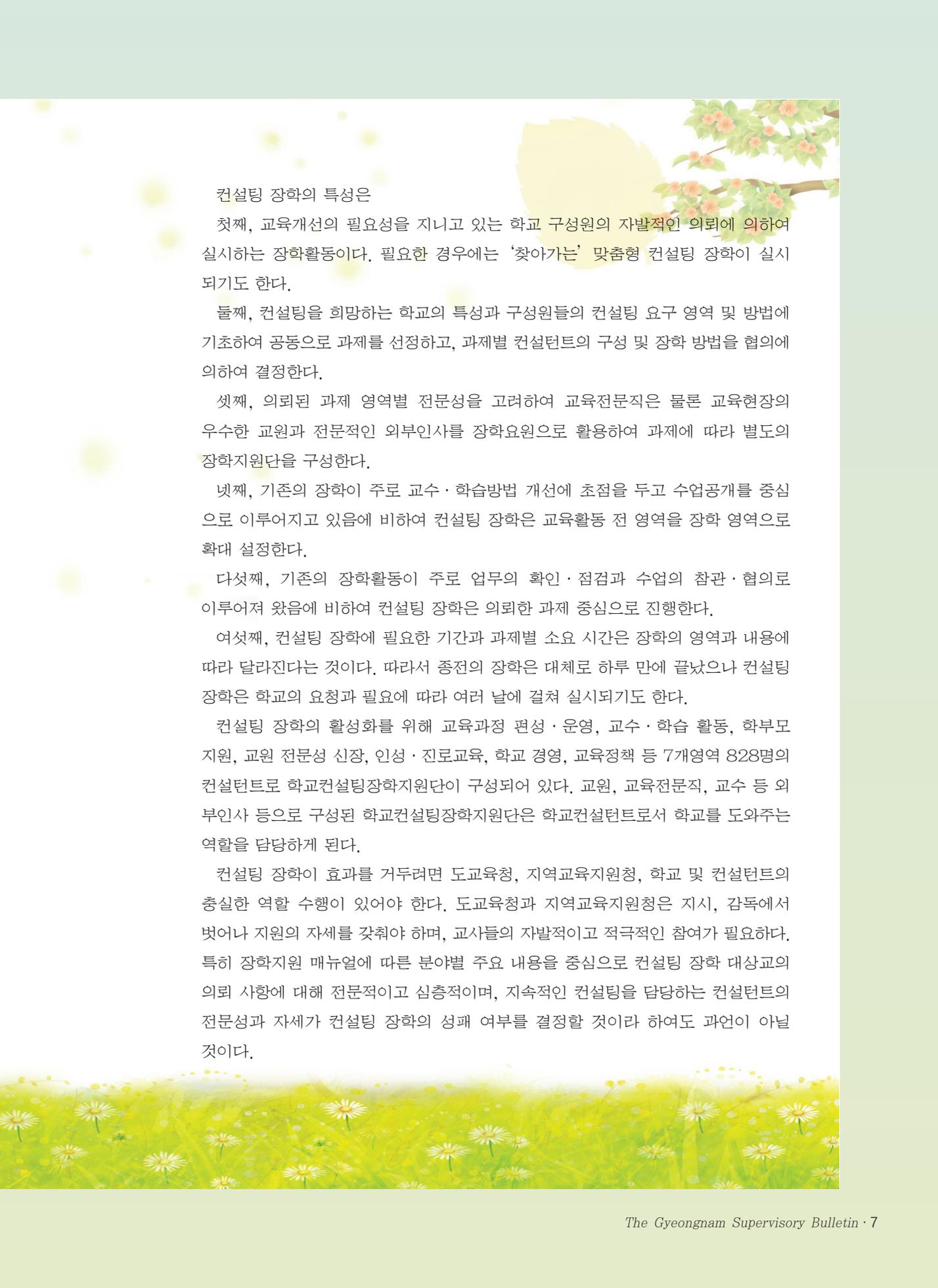
문 오 권
교육과정기획과장

컨설팅 장학의 성패는 참여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교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로는 교원양성교육, 직전 교육, 교원 임용제도, 장학, 현직 교육 및 교원평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교직 입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업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은 장학과 현직 교육 및 교원평가이다. 그런데 장학과 현직 교육 및 교원평가는 수혜 당사자인 교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학의 기능이 ‘시학(視學)’에서 ‘지도·조언’ 하는 기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으며, 지난 수십 년간 실시되었지만, 교원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다. 장학의 성패는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장학에 대하여 적극적 수용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학은 다시 ‘컨설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2010년부터 종합장학을 폐지하고 정책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위주의 장학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기능·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2011학년도부터 감독·점검위주의 담임장학과 종합장학에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는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해 학교 경영문제와 교육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하는 장학 활동이다. 장학의 일정과 내용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요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컨설팅 장학의 핵심이다.





컨설팅 장학의 특성은

첫째, 교육개선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의뢰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학활동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장학이 실시되기도 한다.

둘째,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컨설팅 요구 영역 및 방법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컨설턴트의 구성 및 장학 방법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셋째, 의뢰된 과제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직은 물론 교육현장의 우수한 교원과 전문적인 외부인사를 장학요원으로 활용하여 과제에 따라 별도의 장학지원단을 구성한다.

넷째, 기존의 장학이 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초점을 두고 수업공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하여 컨설팅 장학은 교육활동 전 영역을 장학 영역으로 확대 설정한다.

다섯째, 기존의 장학활동이 주로 업무의 확인·점검과 수업의 참관·협의로 이루어져 왔음에 비하여 컨설팅 장학은 의뢰한 과제 중심으로 진행한다.

여섯째, 컨설팅 장학에 필요한 기간과 과제별 소요 시간은 장학의 영역과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장학은 대체로 하루 만에 끝났으나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여러 날에 걸쳐 실시되기도 한다.

컨설팅 장학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활동, 학부모 지원, 교원 전문성 신장, 인성·진로교육, 학교 경영, 교육정책 등 7개영역 828명의 컨설턴트로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다. 교원, 교육전문직, 교수 등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은 학교컨설턴트로서 학교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컨설팅 장학이 효과를 거두려면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및 컨설턴트의 충실한 역할 수행이 있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지시, 감독에서 벗어나 지원의 자세를 갖춰야 하며,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장학지원 매뉴얼에 따른 분야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학 대상교의 의뢰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이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는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자세가 컨설팅 장학의 성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남교육청의 학교 컨설팅 장학 방향



강 대 룡
경상남도교육청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정보화·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과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의 새로운 역할 모델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컨설팅 장학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과 맞물려 장학 방법의 변화를 위해 교육현장에 새롭게 접목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 장학인 담임 장학이 학생과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이러한 학교 컨설팅 장학은 단순히 장학의 유형을 바꾸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워나가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 컨설팅 장학은 교원들이 장학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의 조직문화를 개방적이며 민주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학교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해 학교 경영문제와 교육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대안 실행과정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장학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컨설팅 장학 활동이 적극 반영된 2011학년도 장학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안내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 경남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정책이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필요에 기반한 학교 컨설팅 장학활동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 장학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의 컨설팅 장학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수업기술력 향상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과 함께 교실수업개선에 중점을 두고 장학활동을 전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 경남교육청의 컨설팅 장학 구현 체계

-단위학교 컨설팅 장학 안착을 통한-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컨설팅 장학 여건 조성

- 컨설팅 장학 예산 확보
- 컨설턴트 연수 실시
- 현장 분위기 조성
- 컨설턴트 인력풀 확보

컨설팅 장학 지원체제 구축

- 전문가 양성 과정 신설
- 매뉴얼 개발 · 보급
- 선도교육지원청 운영
-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컨설팅 장학 활동 전개

- 컨설팅 장학 모델 개발
- 온라인 전용 센터 개설
- 지구별 장학협의회 활용
- 평가 자문단 운영

[지역적 · 문화적 배경]

-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
- 전문직의 업무급증에 따라 기존의 장학활동에 대한 신뢰도 부족
-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해 학교경영 문제와 교육현안을 진단할 수 있는 장학 유형 필요

[교육감의 추진 의지]

-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개편으로 봉사와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은 시대적 요구임
- 컨설팅 장학은 단순히 장학의 유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적개선에 기여해야 함
-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써 정체성을 회복 · 강화하는 일이 시급함

2. 경남교육청의 컨설팅 장학 기본 방향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사항 반영

교육청 기능·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점검 위주의 행정적 성격의 담임 장학을 지양하고, 교사와 학교가 의뢰하고 요청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컨설팅 장학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업명사와 수석교사를 컨설턴트로 지정하여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컨설턴트의 확보에 주력한다.

나. 단위학교의 요구에 의한 컨설팅 장학 활성화

단위학교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장학을 요청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뢰인이 요구한 문제해결 중심의 장학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컨설팅 장학활동 관련 학교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다. 단위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장학 활동의 효율화

컨설팅 장학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 기관별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도교육청에서는 장학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장학활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해야 하며, 도내 컨설턴트의 합동 연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컨설팅 장학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컨설턴트의 발굴과 연수 등 장학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실제 교사와 학교의 의뢰 신청서를 수합 정리한 다음 컨설팅 장학 활동을 주관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결과 정리 및 평가 활동을 주관하면서 특히, 컨설팅 장학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학교 현안 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 및 요구자료 제출과 함께 컨설팅 장학 실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라.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방식 개선

업무 전달 중심의 협의회 방식을 지양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적극 지원하며 지구별 현안 사업에 대한 충실한 협의 및 학교별 특색사업 노하우 공유 중심의 자율협의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3. 경남교육청의 컨설팅 장학활동 정착을 위한 노력

컨설팅 장학에 대한 현장 교원 및 전문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회 및 워크숍을 연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부터 1박 2일 동안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담당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2월

8일에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장학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2011. 도교육청 장학활동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협의회를 가졌다. 그리고 3월 31일 창신대학 대강당에서 도내 컨설턴트 828명이 모두 참석한 컨설턴트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컨설팅 장학 선도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선도교육지원청으로 김해와 창원교육지원청을 지정하였고, 오프라인 선도교육지원청은 거창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성과 거양을 위해 별도의 운영비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컨설팅 장학의 세부 절차 및 단계별 고려사항을 담은 컨설팅 장학 매뉴얼을 개발하여 총 3,000부 인쇄하여 도내 전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부하여 활용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컨설팅 장학 전문가 연수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외에 도교육청 자체 예산 2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컨설팅 장학 운영비로 이미 교부하였다.

4. 향후 계획

컨설팅 장학의 안착을 위한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수과정에 컨설팅 장학 영역을 연수과정에 추가하여 운영함으로써 컨설팅 장학의 현장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컨설팅 장학 업무 관계자 및 컨설턴트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 신장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것이며, 컨설팅 장학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개최와 우수 사례집을 발간·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현장에 도입되어 전개되고 있는 컨설팅 장학의 안착은 경남 교육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시행착오도 예상되지만 장학 담당자의 각별한 노력과 현장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컨설팅 장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컨설팅 장학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



곽 경 희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장학사

장학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컨설팅 장학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노력과 역할이 지대하다고 본다. 컨설팅 장학계획 수립에 이어 컨설팅 장학의 이해를 돕는 연수활동들과 학교에서 요청한 의뢰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들의 기본 소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컨설팅 장학 영역별로 장학지원단의 구성과 컨설팅 동아리를 조직하여 의뢰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컨설팅 장학활동을 학교현장에 제대로 지원해 주기 위한 김해교육지원청의 노력들을 미려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원청의 컨설팅 장학활동 추진 계획

단위학교의 당면 과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활동, 학부모 지원, 교원 전문성 신장, 인성·진로, 학교경영 영역에 컨설팅 장학 희망 학교와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컨설팅 장학 의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컨설팅 장학 지원을 위해 지원단을 조직하고 장학지원단장에는 교수학습지원과장, 업무는 장학담당 장학사가 하도록 하고, 각 영역별로 장학지원 단장, 장학위원(컨설턴트), 컨설팅 관리자를 두었다. 장학위원(컨설턴트)은 장학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장학사, 교원, 외부전문가, 교육행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특히 학습지도연구대회 입상교사, 장학요원, 수석교사, 수업명사를 장학위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1. 컨설팅 장학의 세부 추진 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	세부 추진 내용	일정	주관	비고
1	2011. 컨설팅장학 계획 학교 통보	3월 2일	교수학습지원과	유·초·중등·특수학교 통보
2	온라인 컨설팅 장학방 개설·운영	3월 4일	교수학습지원과	김해지원청 홈페이지
3	2011. 컨설팅 장학 계획 연수(1차)	3월 4일	교수학습지원과	전 초·중등학교 교감 대상
4	2011. 컨설팅 장학 계획 연수(2차)	3월 9일	교수학습지원과	각급학교 장학업무담당자 또는 연구부장
5	2011. 컨설팅 장학 의뢰서 제출	3월 10일	학교 및 교원	
6	컨설팅 컨설턴트 공모 신청서 제출	3월 10일	장학 전문성을 갖춘 교원	
7	컨설팅 컨설턴트 공모 심의 및 도교육청 추천	3월 14일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턴트 49명
8	컨설팅 컨설턴트 협의회 및 위촉장 수여	4월 7일	교수학습지원과	
9	컨설팅 컨설턴트 1차 양성과정 연수	4월13일~15일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턴트 49명 대상 15시간 연수 실시
10	컨설팅 장학 지원단 및 동아리팀 조직 및 운영	4월~	교수학습지원과	6팀 조직(유1, 초4팀, 중등1팀)
11	컨설팅 장학 세부 추진계획(장학일정 및 지원단 포함) 학교 통보	4월25일 이후~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지원단협조)	해당학교 개별 통보
12	2011. 컨설팅 장학 시행(오프라인) (착수 → 진단 → 대안수립 → 해결지원)	4월말경 ~12월	장학지원단	유·초·중등 70여개교 컨설팅 장학 실시
13	온라인 컨설팅 지원 센터 구축 및 홍보, 온라인 컨설팅 시행	5월경~	교수학습지원과	
14	컨설팅 장학 평가 및 결과보고	장학실시후	장학지원단	
15	컨설팅 컨설턴트 2차 양성과정 연수	7월 말경	교수학습지원과	컨설턴트 49명 30시간 연수 실시
16	컨설팅 장학 우수 사례 발표 및 워크숍 실시	12월경	교수학습지원과	
17	컨설팅 장학 관련 홍보 활동	연중	교수학습지원과 해당학교	

2. 컨설팅 장학 안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

가. 컨설팅 장학 홍보를 위한 연수 2회 가져

지난 3월 4일에는 전 초·중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컨설팅 장학 추진 계획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날 2011학년도 장학의 기본계획인 교내자율장학, 특별장학, 지구별 자율장학을 안내함과 아울러 올해 새롭게 등장하는 컨설팅 장학의 목적과 방향, 대상과 영역, 세부추진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지난 3월 9일에는 유·초·중등·특수학교 연구부장 또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강사를 초빙해 ‘왜 컨설팅 장학인가?’에 대한 연수와 아울러 컨설팅 장학 계획에 대해 안내 하였다. 특히 컨설팅의 출현배경, 개념, 원리와 기존 장학과 컨설팅 장학의 차이, 컨설팅 장학의 특성과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나. 컨설턴트 위촉장 수여 및 희망 컨설턴트 조사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기준 자격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컨설턴트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유치 7명, 초등 28명, 중등 24명이 응모 신청하였다. 지원청에서는 응모 신청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심의하였으나 기준 자격에 미달되는 신청자가 없어 신청한 전원이 컨설턴트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49명의 컨설턴트에게 지난 4월 7일에 컨설팅 장학활동 수행에 자부심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날 이미 컨설팅 장학 의뢰서를 제출한 학교(관내 유·초·중등 72여개교)의 의뢰문제를 살펴보고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학교에 희망조사를 실시하여 의뢰 학교별로 컨설턴트를 배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다.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위한 1차 양성과정 연수 실시

2011년 4월 13(수)부터 4월 15일(금)까지 컨설팅 장학활동을 지원하게 될 컨설턴트 49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1차 양성과정 연수(15시간)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에서는 컨설턴트들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여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컨설팅 장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과 자세 그리고 타시도의 컨설팅 장학의 우수사례 및 어려움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실제로 컨설팅 장학을 수행해 보는 분임활동을 통해 컨설팅 장학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연수를 받은 49명의 컨설턴트들은 올 4월 말경부터 남은 해 동안 컨설팅 장학을 의뢰한 70여개 유·초·중등학교에 컨설팅 장학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컨설턴트 양성과정의 세부 일정과 신문에 홍보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시간	내 용	방법	시량	비고
4.13 (수)	15:00-17:10	장학 패러다임의 변화 및 컨설팅 장학의 이해	강의	3시간	
	17:20-18:50	해당학교별 컨설턴트 배정 및 장학지원단 구성 컨설팅 동아리팀(6팀) 조직	토의	1시간	유·초·중 담당장학 사 협조
4.14 (목)	15:00-17:10	컨설팅 의뢰학교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토의	1시간	컨설팅 동아리 팀
	17:20-19:30	컨설팅 장학 우수 사례 및 어려움 대처 방안 학교 컨설팅 기법(컨설턴트 역할 및 자세)	강의	3시간	부산 남부교육청 우수사례 컨설팅 직무 연수 이수자
4.15 (금)	15:00-18:10	모의 컨설팅 장학 사례 선정 (컨설팅 장학의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분임	1시간	6팀별 운영
		모의 컨설팅 장학 수행(컨설턴트, 의뢰자 역할 배정)	분임	2시간	"
		모의 컨설팅 장학 보고서 내용 토의 및 작성	분임	1시간	"



라. 컨설턴트 동아리 팀 조직 및 운영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6팀의 동아리(유1, 초등4, 중등1)를 조직하였다. 각 학교별로 배정된 몇 명의 컨설턴트들만이 해당학교 의뢰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팀 전원이 함께 모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동아리 팀에서 토의·의논한 내용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학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청에서는 컨설턴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 온라인 컨설팅 지원센터 구축

연초에 컨설팅 장학 실시를 위해 김해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컨설팅 장학이란 주 메뉴를 두고 그 아래에 컨설팅 영역별로 부 메뉴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컨설팅 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를 5월 중에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컨설팅 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의뢰인이 의뢰문제와 함께 해결해 줄 컨설턴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곧바로 희망 컨설턴트에게 의뢰 문자메세지가 전달된다. 희망 컨설턴트는 문자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컨설팅 의뢰에 대해 수락 여부를 회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컨설팅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수업 활동 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의뢰하면 문제 해결 지원이 쉽다는 컨설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다.

3. 컨설팅 장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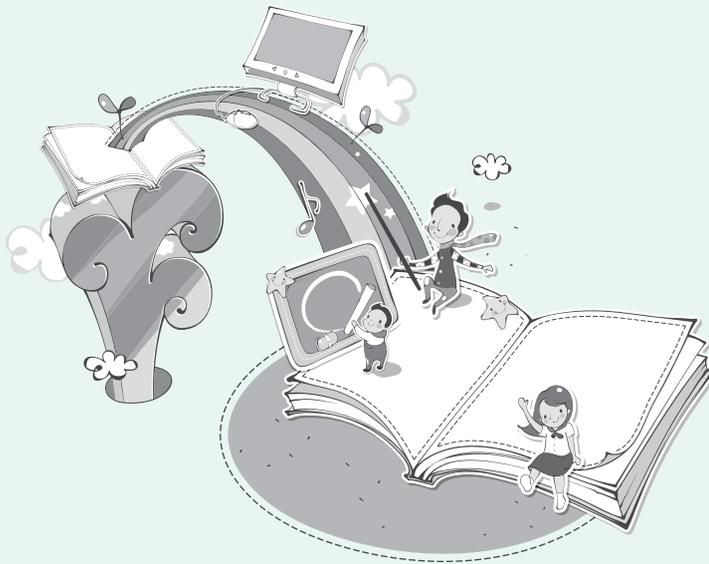
먼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컨설팅 장학이 제대로 학교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컨설팅 장학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실시해오던 기존의 장학과 새롭게 실시하는 컨설팅 장학의 차이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컨설팅 장학활동이 제대로 되느냐 마느냐는 컨설턴트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컨설턴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지원청평가나 학교평가에서 컨설팅 장학과 관련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면 정량평가(횟수)보다는 정성평가(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량평가(횟수)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컨설팅 장학 횟수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컨설팅 장학의 실제적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넷째,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컨설팅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수업개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 바로 컨설팅을 의뢰하면 문제 해결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컨설팅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컨설팅 장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업 안목 함께 키우는 동료 수업컨설팅



황영란

사천 문선초등학교 수석교사

1. 생똥맞게 왜 수업컨설팅이어야 할까?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두고 고민할 때는 대부분 수업을 공개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이다. 시·도 중심의 장학지도가 있을 때나 학부모에게 수업을 공개할 때, 수업연구대회 및 연구교사 수업 공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수업은 보여주는 수업이다 보니 학생 중심의 전개라기보다 보여줄 대상이 중심에 있다. 수업에 대한 분석도 수업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수업 컨설팅은 이렇게 보여주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학교에는 공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미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교실 속 수업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수업에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수업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직의 경력이 쌓일수록 수업이 두려워 교실 문을 닫기 시작했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실마다 구연해내는 품이 다르기 시작해도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른체 했었다.

그런데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만 들켜버렸다. 아이들에게 들켜버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들켜버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학년이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모두 수업컨설팅트가 되기도 하고 또 컨설팅 의뢰인이 되기도 하는 수업컨설팅을 시작하였다.

교내 수업컨설팅은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아니고 수업 목표와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수업을 설계하고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학습공동체 구성원인 동학년 교사들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2. 변화의 출발점은 교사여야 했다

전문성 개발은 교사인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직무이다. 학교가 학습자들의 공동체(Community of learners)로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동학년 중심 학습공동체였고 교내 컨설팅 활동의 시작이었다. 구성원이 함께 탐구하는 동학년 중심 학습공동체 활동은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주고 상호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는 구성원들은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교사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구성원들이 컨설턴트가 되기도 하고 의뢰자가 되기도 했다. 연수 시키는 사람 따로, 연수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끼리 모두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실수하며, 자유롭게 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할 뿐이었다. 이 역할이 커플매니저 역할 같은 컨설팅 관리자 역할이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활동에 주체자로서 참여한 교사는 자신의 지도성(Teacher leadership)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동학년 중심 학습공동체가 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 리더에 속하는 구성원 한두 명이 변화에 둔감한 채 변화하려 하지 않으려는 구성원이 있으면 그 학습공동체는 서로가 배우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학습공동체 활동 보고서만 있을 뿐이었다.

3.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가 있어야 했다

학교 밖에서는 학교를 황폐화된 공교육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을 믿지 못해 사교육을 의지하고 학교선생님보다 사교육선생님과 아이의 학습에 대해 더 많이 의논하는 일이 생겼다.

학교의 위상을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압력도 매우 높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모두 더 늦기 전에 변화야 했으며, 변화의 출발점은 교사부터여야 했다.

그런데 관리자나 일부 리더가 “학교일로 바쁜데 모여서 이야기 나눌 시간 어디 있느냐 각자 알아서 하자” 라는 의견을 모아가기 시작하고, 그 의견에 학교 관리자가 함께 하면 그 학교는 낙관론에 깊숙이 빠져 도도하게 밀려오는 변화의 파고를 거부한 채 현장 유지에만 급급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교실 속에 있는 아이들 하나 하나 가까이서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교사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를 만들어야 학교 컨설팅 활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전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리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4. 수업 안목을 키운 동학년 중심 교내컨설팅 활동 사례

가. 동학년 중심 학습공동체(community of learners) 구성

교사의 전문성은 곧 수업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수업의 전문성은 많은 수업을 연구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안목이 길러지면서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수업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년에 불과 몇 번이 고작이다.

그러므로 수업의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서 수업을 많이 설계하는 과정과 그 과정을 거쳐 만든 수업을 보면서 자기장학 자료로 피드백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선 협의 후 수업’)를 거치게 되면 ‘수업의 안목’을 기를 수 있다는 결론을 가졌다. 2008년부터 본교에는 수석교사가 있었고 수석교사가 중심이 되어 동학년 중심 학습공동체 활동인 교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학년 중심의 학습공동체(community of learners)는 학년부장이 학습공동체 관리자(컨설팅 관리자)를 맡고, 동학년 모든 교사들은 수업컨설턴트 역할을 하였다.

나. 동학년 중심 학습공동체(community of learners) 단계

1) 학습공동체(community of learners) 활동의 과업

동학년 중심 학습공동체에서 수업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의뢰 교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수업과 관련된 그들의 전문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었다. 즉 교사의 수업 개선이 수업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 개선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은 다음과 같다.

가) 동학년 교사들은 의뢰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다.

나) 의뢰 교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과 실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을 지원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다) 의뢰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을 동학년 교사들이 나누어 맡아 이루어졌다.

라) 수업 또는 수업컨설팅 우수 사례는 의뢰교사뿐만 아니라 참여한 동학년 교사들에게 피드백의 정보로 제공되었다.

2) 학습공동체(community of learners) 활동의 단계

동학년 중심 학습공동체 활동 ‘선 협의 후 수업’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컨설팅 의뢰자는 2~3주 전 수업을 공개할 주제를 발표한다.

나) 컨설팅 의뢰자는 발표한 주제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동학년 교사인 수업컨설턴트는 발표한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 학습을 한다.

다) ‘첫 번째 선 협의’ 과정을 통해 먼저 수업자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동료 컨설턴트에게 의뢰한다. 동학년 컨설턴트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한 문제와 전체적인 수업설계를 컨설팅한다. 동학년 동료교사가 몇 명이나에 따라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방안들이 다양하지만 토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들이 전달되고, 다음날 컨설팅 내용의 주제를 정한다.

- 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동학년 수업컨설턴트들은 다음 주 주제를 갖고 두 번째 개인 학습에 들어가고 의뢰인은 동학년 컨설턴트에게 제공받은 방안을 선택하여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 마) ‘두 번째 선 협의’ 과정에서는 ‘첫 번째 선 협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제공된 방안을 적용해본 결과를 발표하고, 협의회 구성원인 컨설턴트들은 학습한 자료와 의뢰인이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대안 또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한다. 컨설턴트들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의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 2~3개를 제공하며 의뢰인이 선택하게 된다.
- 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동학년 컨설턴트들은 ‘두 번째 선 협의’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염려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비교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세 번째 학습 시간을 가지고 의뢰인도 ‘두 번째 선 협의’ 과정에서 얻게 된 대안으로 우리 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의 수업을 찾아간다.
- 사) ‘세 번째 선 협의’ 과정에서는 ‘두 번째 선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제공된 방안을 적용해본 결과를 발표하고 컨설턴트들은 학습한 자료와 의뢰인이 발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 대안 또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거나 수업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종료한다.
- 아) ‘네 번째 선 협의’ 과정은 컨설팅 활동으로 완성된 수업설계안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동학년 학습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제작한다. 이 과정은 자료의 크기 모양, 적용 시기, 제시 방법 등 자료 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학습하게 된다.
- 자) ‘선 협의 후 수업 공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동학년 수업컨설팅 구성원은 의뢰인이 원하는 수업 분석 영역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수업을 컨설팅한 모든 컨설턴트는 자신들이 만든 작품 발표회처럼 어느 부분이 더 아름답게 학생들과 조우하며, 어느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 차) ‘선 협의 후 수업’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하여 의뢰자 중심 수업 관찰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들의 수업관찰 후 소감을 나누는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수업을 한 사람은 의뢰인 한 사람이었지만 컨설팅에 참여한 동학년 교사 모두는 수업을 만들거나 보면서 수업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들이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성을 키워 교실 수업을 개선하게 된다.

〈 선 협의 후 수업 학습공동체 활동의 단계 〉



☞ ‘선 협의’ 과정은 의뢰인이 만족할 때까지 횟수를 늘릴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은 노트북으로 녹취해서 ‘컨설팅 협의록’으로 대신 한다.

수업공개는 녹화하여 자기장학 자료로 제공하고 ‘수업 공개’ 후 의뢰인은 컨설팅 소감록을 작성하고, 컨설턴트는 수업컨설팅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정리한 자료들이 다음 컨설팅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교사들의 수업 안목은 점프하며 성장하게 된다.

〈 선 협의 후 수업 장면 〉



1, 2차 선 협의



자료 제작



수업 및 관찰



수업 후 협의

5.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배우는 교사다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의 저자 이혁규님은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배우는 존재이다. 아이들에게 배움을 강조하기 이전에 교사 스스로 배움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은 각자의 교실에 갇힌 채 서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곳에 독백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교사의 수업 실천을 개선하는 데에는 자발적으로 수업을 공개하는 교사와 그 수업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동료교사 혹은 비평가들의 소통과 안목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내 수업컨설팅 활동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뜻으로 피어나길 소망한다.

교내 수업컨설팅 자료가 필요한 분은 아래 이메일을 이용해주시시오.

artlan54@empas.com

학습자 배움 중심의 토론 수업을 통한 수업 컨설팅 사례



하미정
창원대학교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교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 되기를 바란다. 그 꿈은 간절하기조차 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목이 타는 선생님의 수업을 동정하지 않는다. 잠을 자거나 장난을 치면서 끊임없이 교사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교사의 열성과 학생들의 성취는 반비례하기 일쑤다. 그럴 때는 학생들을 모듈별로 앉혀 놓고 토론할 거리를 던져준다. 학생들은 갑자기 생기가 돌고 흥미로워진다.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될 때 교실은 깨어나고 교사는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처럼 수업에 대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가 다른 교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업에 대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과정이 수업 컨설팅이다. 일반적인 수업 컨설팅은 전시학습 확인 - 동기유발 - 수업 전개 - 정리 및 형성평가 등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기준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전제로 하되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 컨설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토론 수업은 가장 적극적으로 수업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사 중심의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습자 배움 중심의 수업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수업 전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가 강화되어 수업 준비도가 높아진다. 나아가 수업자의 자세가 적극적이며 학습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됨으로써 교과 학습에 대한 자아가 능동적으로 변화됨은 물론 현실에서 경험 가능한 문제해결력 또한 높아진다. 그러나 토론 수업 또한 치밀한 준비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수업으로 그치거



나 중도 포기하는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처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토론 수업 컨설팅의 실제

문제 1 : 토론 수업은 일회적인 행사용 수업이다

처방 : 교과서를 재구성하라. 토론 수업은 일회적인 행사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교과 지도 계획 수립 시에 토론 수업에 필요한 논제를 추출하고, 이를 위한 수업 설계를 계획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국어과 교육의 현실에서 기존의 강의식 수업방식을 고집하면서 토론 수업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사는 반드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연계된 토론 논제를 추출하고, 이를 운영할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문제 2 : 무조건 토론에 들어간다.

처방 :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준비 없이 진행되는 토론 수업은 알맹이 없는 수업이 될 수 있다. 사전에 논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논제와 관련되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활용하고 이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찾아내는 것이 토론 수업 목표 달성의 관건이다. 따라서 주장에 합당한 논거를 추출하고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 3 : 토론 수업의 절차를 무시한다

처방 :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라. 토론의 기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때 짜여진 수업으로 인식된다. ①안건을 발표한다. ②배심원들에게 토론 진행 전에 의견을 묻는다. ③찬성과 반대표를 세어본다. ④작성시간을 갖고 반대 측에서 받은 질문과 반론 꺾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한다. ⑤찬성 쪽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반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동일 시간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⑥작성시간을 갖고 양측 모두 최종 의견을 정리한다. ⑦최종발언은 찬성 쪽부터 시작하며 시간은 2분을 넘지 않는다. ⑧배심원들이 질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⑨처음 배심원들의 생각과 최종 결정의 결과가 다를 때 생각이 다른 배심원의 이유를 듣는다. ⑩토론 전과 후에 입장이 바뀐 정도를 확인한다.



문제 4 :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토론주제를 제시한다

처방 : 범위를 제한해 주는 주제를 제시하라. 학생들이 분명한 입장을 정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주제가 적합하다. 예를 들면, ‘문학의 기능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의 경우 ‘문학의 참여성과 순수성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제 5 : 지나치게 평범하고 쉬운 토론주제를 제시한다

처방 :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하라. 쉬운 주제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익숙하게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주제는 준비를 소홀하게 하거나 토론 과정이 활발하지 않아 결국은 미흡한 토론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낯선 주제일수록 학생들이 흥미 있게 참여하여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내용도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 6 : 무리한 사전학습이 필요한 주제를 제시한다

처방 : 학생의 특성과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토론주제를 제시하라.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지, 컴퓨터나 도움 자료에 접근 가능한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주제를 제시하여 토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토론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면 그 수업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문제 7 : 모둠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제시한다

처방 : 쟁점이 있는 주제에 집중하여 제시하라. 토론 집단별로 전혀 다른 토론주제를 제시하면 산만한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는 학습 결과에 대한 토론집단 간의 비교가 어렵고, 학습 결과의 발표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유연한 태도로 대응함으로써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교사의 몫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의 개방적 사고나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을 토론 주제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 8 : 토론 결과의 발표가 형식적이다

처방 : 학습의 결과를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 발표 결과에 대한 언급 없이 학생들이 발표하고 의미 없이 박수만 치면서 끝내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토론 수업 과정에 발생한 오류 여부, 다른 모둠의 토론 결과와 다른 점 등을 파악하여 하나의 새로운 지식으로 내면화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 수업 결과의 발표 방법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하고, 교사의 보충 설명과 지도 조언도 수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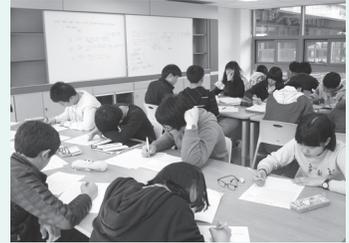
문제 9 : 빈손으로 앉아서 토론한다

처방 : 토론 활동지를 준비하여 안내 자료로 활용하라. 토론 활동지는 토론의 과정과 평가 등의 정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내용이 너무 단순한 활동지나 노작공간이 없는 활동지 등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토론주제, 토론방법, 관련자료, 토론자의 발언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문제 10 : 토론은 평가와 무관하다

처방 : 다양하고 실질적인 평가 방법을 고민하라. 처음부터 학습 전략에 평가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토론 결과를 얼버무리거나 평가하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흐지부지

끝나게 된다. 학생들은 방관자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 수업에 소홀해지기 쉽다. 반드시 토론 참여자, 발표자, 평가자 등 역할과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토론 학습 후 논술문 작성과 연계하여 평가 자료로 삼을 수 있고, 그 과정 자체를 관찰하여 학습태도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처럼 누가 기록한 사항은 생활기록부의 세부특기사항에 문장으로 기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평가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Ⅲ. 나가며

수업 컨설팅의 주된 목적은 교사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컨설턴트는 양적, 질적인 방법으로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 줌으로써 교사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인 교사의 자율성에 있을 뿐이다. 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의 시작과 끝을 모두 통찰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의 확보가 급선무이며 컨설턴트 자신이 수업에 대한 깊은 안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룬 토론 수업에 대한 컨설팅은 국어과 수업에서 적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으로써 토론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좋은 학교로 거듭나기 - 자율형 공립고 운영



이 남 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우리 도에서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는 양산고, 김해고, 진주고, 마산고, 거제제일고, 진해제일고, 진양고, 김해제일고 이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형 공립고 운영 방법을 탐색하면서 새로운 학교 모형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대 전	광 주	울 산	강 원	경 기	충 남	충 북	전 남	전 북	경 남	경 북	제 주	계
지 정	2	3	4	3	3	·	·	·	4	3	2	3	·	8	3	1	39
합 계	19	12	12	4	6	3	1	0	9	5	3	5	2	8	7	1	97

□ 자율형 공립고란

정부는 2008년부터 학교자율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등 여러 특성을 가진 학교 운영으로 학생·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다양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자율형 공립고 또한 교육낙후 지역의 공립 일반고나 비선호 학교, 신설 학교 등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여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양질의 교육 실현이 가능하도록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다.

□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교과별 필수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단위수 증감·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의 폭을 확대할 수 있고, 교과 신설이나 교과서 자체 제작 사용 등 교사들의 교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도 상당 부분 보장한다. 또한 공모교장 임용으로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개설한 교과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교사를 100%까지 초빙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연간 2억원(교과부 1억, 도교육청 1억)씩 5년 간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나 대학 등과 협약하여 인적·물적 자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 등의 부수적인 성과까지 달성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가 자연스레 높아지리라 기대는 명약관화하다.

□ 명문고가 아니라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자율형 공립고가 지향하는 바는 ‘좋은 학교로 거듭나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차라리 특목고로 방향을 잡을 일이다. 우리 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 기본 방침은 ‘선지원 후추첨’이다.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에 ‘우선 모집’이라는 특례는 없다. 따라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잘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른바 명품교육)’에 학교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명품교육’의 결과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가 소재한 지역에서 본보기 학교로 기능할 때 ‘명문’이라는 평가는 저절로 얻어질 보람이 될 것이다. 모두가 기대하는 자율형 공립고는 주변 학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 자율형 공립고 - 함께 발전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의 촉매

교과부의 기본 계획은 2012년까지 자율형 공립고 100개 지정이었다. 그런데 당초보다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경남의 자율형 공립고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굳이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모든 학교들이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가 자극제나 촉매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

Rhythm UP, English UP



전 효 식

의령 남산초등학교 교사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다양한 인쇄물이나 방송 매체에서는 영어로 된 수많은 표현들이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 범주는 인터넷 활용으로 인해 세계 전역으로 확장되어 있기에, 이제는 정말로 영어 사용을 멀리하거나 회피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우리는 영어권 문화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이 영어의 달인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길은 험난하기만 하고 특히, 경상도 지방의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기에는 투박한 경상도 억양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리듬을 살린 영어 읽기」를 반복적으로 지도한다면 우리 경상도 학생들의 투박한 억양에 좋은 윤택유 역할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영어 읽기 지도법을 구안하여 적용해 보았다.

1. 영어 교사용 지도서에는

영어 읽기의 원칙은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어(content words)에 강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반면, 문장 구성의 역할을 할 뿐 의미상으로 중요하지 않는 기능어(function words)는 대체로 약하게 발음되는데 주로 관사, 전치사, 대명사, 접속사, 조동사, be동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 간단한 문장에는 Ta-ti 지도법을

영어에서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어’는 길고 자세하게 발음하고 의미상 중요하지 않는 ‘기능어’는 짧고 약하게 발음하는 영어 읽기의 리듬을 익히기 위해 「Ta, ti」지도법을 구안하여 적용해보았다.

가. 「Ta, ti」지도법

「Ta」는 ‘내용어’로 길고 자세하게 발음하며 ◎로 표시하고, 「ti」의 경우 짧고 약하게 발음하며 ○로 표시하고,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예) ‘Does your mother work?’을 「Ta, ti」지도법으로 지도할 경우

● 1단계 -

○	○	◎	⊙
---	---	---	---

 제시하고 리듬 익히기

● 2단계 -

○	○	◎	⊙
Does	your	mother	work?

 제시

- 교사는 「Ta, ti」리듬을 선창, 학습자는 리듬에 맞춰 문장 읽기

● 3단계 -

○	○	◎	⊙
Does	your	mother	work?
			↗

 제시

- 2단계 활동에 억양을 함께 포함하여 문장 읽기

나. 「Ta, ti」지도법의 한계

「Ta, ti」지도법은 문장을 리듬감 있게 읽거나 말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문장이 다소 길거나 복잡할 경우 문장을 「Ta, ti」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워 보였다. 따라서 「Ta, ti」지도법은 3~4학년의 저학년에게 짧고 간단한 문장을 지도할 경우에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3. 긴 문장은 Bar 지도법으로

가. Bar 지도법

「Ta, ti」지도법을 6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문장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Ta, ti」지도법과 유사하지만 그 과정이 간단한 「Bar 지도법」을 고안하여 적용하였다.

여기에서의 Bar는 색깔 있는 종이 자석을 5~10cm 정도로 자른 것을 말한다.

Bar는 문장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낱말인 ‘내용어’의 위나 아래에 붙이고,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자세하고 길게 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낱말인 ‘기능어’는 빠르고 약하게 읽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리듬을 살린 문장 읽기가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

나. Bar 지도법 단계

- 1단계 - 지도할 문장 칠판에 제시하기
- 2단계 - 문장 속의 '내용어'를 학습자와 함께 찾아보기
- 3단계 - '내용어' 위나 아래에 색깔 자석(Bar)을 붙이고 길고 자세하게 읽기
- 그 외의 낱말(기능어)은 빠르고 약하게 읽기
- 4단계 - 강조할 낱말에 색깔이 다른 둥근 자석을 붙이고 강세도 함께 연습하기

4. 읽기 지도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영어교육의 4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읽기 영역이고, 특히 학생들의 개인 차이가 많이 나는 영어에서 모든 학생들이 읽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읽기 지도법의 하나로 고안된 「Ta, ti」지도법과 「Bar지도법」은 읽기 수업의 지루함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었으며, 경상도 학생들의 투박한 영어 억양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배움이 점프(Jump)하는 수업 만들기

장 윤 정

함안 함안고등학교 교사
(경상남도 수학과 수석교사)

I. 들어가는 말

훌륭한 교사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배움을 전해주고자 하는 자세와 이를 실천하는 교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최고의 배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단연 교사의 훌륭한 수업에서 나온다. 브랜드를 지향하는 훌륭한 수업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 덕목을 갖추고자 부단히 배우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도 브랜드다

브랜드(Brand)의 사전적 정의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해서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용어, 상징, 디자인 혹은 그의 결합체’이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의 결합으로, 브랜드를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수업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고민과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다.

II. 수업의 3요소

수업을 잘 하기 위하여 교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다.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발현시키는 일을 업으로 하는 교사야말로 자기 교과와 교육 일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을수록 보이는 부분이 많아지는 빙산처럼 교사의 전문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이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한 시간 동안의 예술이다. 따라서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학습하게 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수업 기술이다.

수업은 교사 혼자만의 모노드라마가 아니라 학생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향적 움직임이다. 따라서 학생을 수업 속에 끌어들이고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열정이 필요하다. 스스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주름진 옷을 펼 수 없는 다리미처럼 교사의 뜨거운 열정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낳고 나아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호흡하는 좋은 수업을 만든다.

III. Jump하는 수업 만들기를 위한 실제 수업 장면

1. 모든 활동을 인간관계에서 출발하자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과의 평소 인간관계이다. 교사는 사소한 소란에 말려 학생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사소한 소란은 무시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가끔 학생들의 사소한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생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교사들이 있다. 학생들은 아무리 훌륭한 수업일지라도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사의 수업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2. 멘토 활동으로 학생의 배움이 점프하는 광경을 경험하자

한 사람에게 있어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교사의 작은 멘토 활동으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 교사는 그 경험이 행복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학생 상호간의 멘토·멘티 활동도 진행시켜보자.

수업 중 필수요소에 대해서는 희망 학생별로 멘토·멘티를 짝지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이를 수행한 두 학생 모두에게 칭찬 스티커나 과제 면제권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여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서로 배우고 협동하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3. 자신의 수업을 자신이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자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수업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교사로서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수업 컨설팅에서도 특히 자기 컨설팅은 아주 중요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놀랍게도 자신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수업을 분석하여 보는 교사가 드물다.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4. 가끔은 스스로의 허점을 드러내보자

요즘 학생들은 ‘쿼터리즘(Quarterism)’이라는 단어로 대변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15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ICT 활용,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드라마를 인용하거나 어설피게나마 개그맨들의 대사를 인용하는 것도 학생들과의 친밀감 형성 및 동기유발에 아주 효과적이다.

5. 수업의 필수 학습요소는 정확히 전달하고 반복하자

학생들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만 하다가 수업의 기본을 놓치는 수업은 주객이 전도된 수업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수업 중 필수 학습요소를 잊지 말고, 가능하면 반복해서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6. 학생들에게 도전의 용기를 갖게 하는 발문법을 배우자

제대로 된 발문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발문은 학생을 좌절하게 만든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눈높이에 맞는 발문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발문을 하고 나면 3초의 wait time을 가지는 여유로움을 연습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신이 질문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답하는 성급함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 내외이다.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워서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는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아주 좋다. 이름을 외우지 못했다면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좌석표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7. 형성평가는 수업의 마지막에 하는 것일까?

형성평가는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표정 살피기 등 수업 중 수업의 이해정도를 살피는 작업 하나하나가 모두 형성평가이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여 수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IV. 나가는 말

교사의 기본은 수업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교실 안의 최대 변수는 교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시간의 수업을 망쳤다고 생각된다면 학생들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업을 ‘티칭’이 아닌 ‘러닝’의 구조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이 수업의 어느 시점에서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났고, 어디서 아이들의 배움이 점프했는지, 또는 무너졌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고의 배움을 전해주는 수업, 브랜드를 갖춘 훌륭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 역시 분명히 배움이 점프할 것이다.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차세대 나이스에서 업무 승인 관리

NEIS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게된 메뉴 중의 하나가 바로 업무 승인 메뉴들일 것입니다. 기존의 교무업무와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으로 복무관련 사항들을 가져오면서 약간의 메뉴가 개편되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메뉴들의 달라진 점들을 기준으로 간단한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 승인함의 달라진 사항들

- 미승인함/작성함을 상신함과 미결/협조함으로 분리
- 일반행정 영역에 기존 교무업무에서 사용하던 예결함 기능 추가
- 완료함을 기결함으로 명칭 변경, 공람함 추가
- 승인완료된 자료는 기안자는 상신함, 결재자는 기결함에 보관(기존 나이스에서는 완료함에 보관)
- 복무 완결자료 취소 시 기결취소 기능 도입(기존 나이스에서의 최종 승인자, 기안자가 완료함에서 삭제, 마이페이지에서 삭제 절차 폐지)
- 결재진행중인 문서에 대한 회수 기능 추가



1. 상신함의 역할

- ▶ 본인이 상신한 문서의 결재상황을 조회하거나, 개인결재선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건에 대해 회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 전체, 진행중, 기결, 반려, 기결문서취소 글자를 클릭하면 각각의 문서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상신문서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나며 상단의 결재상황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결재현황이 표시됩니다(상신 문서의 결재 진행 상태를 알 수 있음)
- ▶ 결재 진행이 완료되기 전 잘못 처리된 문서에 대해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 상신함에서 개인결재선등록을 클릭하면 결재선을 등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나며 결재선 신규등록을 클릭한 후, 결재선에 텍스트로 결재선이름을 임의대로 지정합니다.
- ▶ 결재자 추가를 완료하였으면 결재선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 기안문서 상신 시 결재자 지정 버튼 대신 개인결재선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개인결재선을 이용하여 상신할 수 있습니다.



- ▶ 결재 완료된 승인건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상신함에서 완결된 결재내역을 클릭한 후, 팝업창이 뜨면 기결문서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 ▶ 기결문서취소는 완료된 결재 문서에 대한 취소 기안을 상신하는 것이며 취소하려는 기안 문서의 제목에 [기결취소기안] 이 덧붙여져 상신 문서가 하나 생깁니다. 이때 결재선은 원래의 결재 문서 결재선과 동일합니다.

- ▶ 기결취소 문서에 대하여 결재가 완료되면 원래 완결이었던 결재문서의 상태는 기결취소, [기결취소기안]의 상태는 완결(기결취소)가 됩니다. 완결(기결취소)인 상태가 결재 완료된 문서에 대해서 취소된 상태이며, 해당 복무건은 삭제 또는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2. 미결 / 협조함의 역할

- ▶ 본인에게 승인요청된 건에 대해 결재(또는 반려)처리하거나 대리결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에게 승인요청된 문서가 있다면 해당문서를 선택 후 상단의 결재버튼 클릭, 팝업창이 나타나면 결재(또는 반려) 체크 후 처리를 하면 됩니다.
- ▶ 장기출장 등으로 승인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리결재자를 지정하여 승인처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대리결재자지정 팝업창에서 지정버튼을 클릭하여 대리결재자를 지정한 후 대리결재기간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 이때 대리결재시간은 매일 00:00~24:00까지 적용되며, 대리결재자로 지정되어 결재한 경우 결재문서는 대리결재자의 기결함에 보관되어집니다.

3. 예결함의 역할

- ▶ 본인에게 협조/승인요청되었으나 아직 결재순서상 본인에게 오지 않고 중간에서 결재처리중인 각종 문서가 조회됩니다.
- ▶ 본인이 출장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때 예결함을 미리 확인하여 급한 문서에 대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조회 후 해당문서를 클릭하면 해당문서의 현 결재처리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4. 기결함의 역할

- ▶ 기존 나이스의 완료함을 의미하며 본인이 결재 완료한 문서가 보관됩니다.

5. 메시지함의 역할

- ▶ 메시지함은 업무 중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업무연락의 메일 보내기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보내고자 하는 사용자를 검색하여 더블클릭하여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내기 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 메일과 다른 점은 파일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독서 교육

구 현 숙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사

영국의 아이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찾듯, 해리포터의 새로운 시리즈가 판매되기 전날이면 전국에서 밤새 서점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책을 기다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독서 경험을 갖기에 한국 아이들이 대중문화와 연예인에 열광하듯 평생을 책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에 열광하고 씨름하고 편견을 깨고 용기를 얻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웃어대는 능동적인 책의 소비자가 되는 걸까? 좋아하는 작가를 마음 설레며 찾는 걸까?

또한 영국은 인구 규모에 비해 매우 경이로울 정도로 특징적인 천재과학자, 예술가, 작가, 사상가, 대중문화와 스포츠스타, 탁월한 정치 지도자, 학자, 미디어종사자, 사업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 모든 해답을 영국의 독서 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1. 공교육의 수업시간에 교과서 없이 이루어지는 책임기 경험

영국의 공교육은 1988년 교육법 개정 전까지는 국가의 강제력이 거의 없다가 그 이후 강제력을 가진 '국정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무슨 과목을 '필수'로 하느냐와 과목별 각 단계에 '도달해야 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최소한의 윤곽만을 제시할 뿐 지정된 교과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교과서 외의 책이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러한 교과서 외의 책임기 경험은 역사, 사회, 종교, 미술, 수학, 과학에 이르기까지 전 과목, 전 학년에 걸쳐 직접 활용된다. 그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쪽 가까이 되는 장편의 동화를 수업교재로 쓰고 중등학생 정도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기 교재로 한다고 한다.

둘째,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교재를 읽고 그를 통해 알게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학생 자신을 합리적 논리 위에 체계적으로 밝힐 줄 알면 된다.

셋째, 교과서가 없으니 진도를 고려하지 않고 주제별 통합수업을 하기가 쉽다. 주제별 수업은 학교에서 다양한 책을 활용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교과서의 부재는 이렇듯 작품의 길이, 종류, 입장이 서로 다른 책을 수업시간에 다양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2. 책의 전문가가 되어있는 영국의 교사

교사는 자신의 과목을 어떤 철학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구성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며, 어떻게 평가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므로 ‘전달능력’ 이상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책에 대한 고민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의 교사들은 교육 기간 내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발휘할지를 고민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훈련받는다고 한다. 교사의 교육은 대학과 학교 현장을 오가면서 이루어지고, 실습기간도 우리나라의 네 배 이상이며 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영국의 교사들은 잡무가 아닌 수업자료를 위해 책을 뒤적거리고 필요하다면 오리고 붙이느라 오늘도 바쁘다고 한다.

3.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는 평가 방법

영국의 교육평가는 학교에서의 교육평가뿐만 아니라 7세, 11세, 14세에 치르는 전국적 규모의 학업성취도 검사에 절대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중등자격시험(GCSE)과 에이레벨 역시 절대평가와 서술형이라고 한다. 이 시험들은 지필 시험과 수행평가로 실시되며 각각의 반영률은 50%이다.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가 서술형·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이 학교 교육에 활용될 여지 많다 그리고 시험의 핵심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추리하여 ‘자신의 고유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해야하기에 다독(多讀), 다상량(多想量), 다작(多作)하는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길러야 가능하다고 한다.

4. 책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제

가. 다양한 서비스로 생활의 일부가 된 영국의 공공 도서관

아무방향이나 10분만 걸으면 솔집만큼이나 도서관이 나온다고 한다. 도서관을 들어가는 데에는 아무런 증명도 멤버십도 이용료도 필요 없다. 2007년 OECD국가의 공공 도서관 현황 비교에서도 공공 도서관 한 곳당 인구수는 1만 3000명꼴로 우리나라 8만 6865명이었던 데 비해 월등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리고 도심에서 가장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대영 도서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 바로 옆 건물 정두고, 캠브리지, 옥스퍼드, 바스의 중앙 도서관은 도심의 가장 큰 쇼핑몰 안에 있어 잠깐의 짬이 나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서관은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서, 악보, 지도, 잡지, 도록, 영화 등과 교류의 장으로서 벌이는 각종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모든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곳

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도서관에서 책과 친구가 되어 자랄 수 있는 행복을 영국의 아이들은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나. 독서 문화를 바꾸는 어린이책 단체

영국의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서 8개월이 되면 예쁜 가방에 담긴 그림책을 2권 받는다. 이 책 선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정을 모으고, 운영하는 영국의 단체는 북트러스트(Booktrust)이다. 자선단체이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 하는 조직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영국국립도서재단(National Literacy Trust, NLT), 어린이책 그룹 연합, 로알드 달 재단, 리다톤 등 어린이책과 관련된 자선단체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한다.

이런 단체들 간에는 개별적 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등을 진행하지만 유기적인 협조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런 단체들 간의 분업과 협조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효과를 배가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 행사의 목적과 아이디어 주최 측은 다양해도 행사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학교나 도서관, 가정에서 이루어져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어린이의 독서와 성장을 관찰하고 도울 수 있다고 한다.

5. 책 홍보

다양한 이벤트로 영국의 서점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곳만이 아니라 작품을 만나는 공간으로 꾸며져, 책의 홍보를 교육과 결합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 책을 ‘읽기 능력별 전시’, ‘저자별 전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가의 구성’, ‘작은 책을 위한 별도의 책장’ 등으로 책값이 싼 온라인 서점보다 오프라인 서점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서점도 영국의 독서 교육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해 내고 있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북페스티벌, 무대예술로 만나는 어린이 책, 그림으로 책읽기, 북투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책과의 만남에서 주인공은 아이들이 되고 있었다.

6. 책읽기의 내적 즐거움을 목표로

즐거움은 책을 평생 친구로 만드는 키워드이다. 그래서 책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있으면 재미있어 저절로 빠져드는 친구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독서교육이 해내야 하는 과제가 아닐까한다. 그 해법을 독서가 생활인 영국의 독서교육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독서교육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책 경험을 통해 개인의 책읽기를 벗어나, 책읽는 기회를 늘리는 사회 전체의 독서 운동으로 이끌어내어 ‘함께하는’ 책읽기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폐교의 위기를 딛고 일어난 학교’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희망’ 용산교육



정 명 진

김해 용산초등학교 교사

◎ 용산초등학교는

김해 유일의 벽지학교인 용산초등학교는 1937년 5월 27일 개교한 이후로 현재 1,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명품의 학교이다.

학교 건물 뒤로는 금동산의 드높은 기상이 자리하고, 교정 앞으로는 여차 들판의 풍요로움이 아이들의 마음을 따사롭게 하며, 더 나아가 낙동강의 유구한 흐름 속에 배려와 자비의 마음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도사리는 꿈의 명품학교, 찾아오는 학교의 모델, 용산초등학교다. 2011년 3월 현재, 학생수가 100여 명 넘는 상태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시내에서 임대버스를 통해 통학하고 있어 언제든지 학생 수의 변동이 많은 학교이며 한때 폐교 위기를 벗어나 유학 온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늘 학교존폐의 위기감이 형성되어 있다.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임대버스를 통해 통학 차량비를 지원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등·하교시간을 제공하고 임대차와 함께 통학안전도우미를 계약해서 학생들 등하교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용산 bus stop표지판을 만들어 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오는 학교를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 단체의 도움으로 매년 시설 확충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영어체험학습장,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체육시설 등을 지원받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여 특성화교육 명문학교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 특색교육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명품 학교이다.

◎ 자랑거리1 : 특성화 교육으로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

전교생 영어 주 3시간, 3~6학년 제2외국어(중국어), 교육영어·중국어의 외국어 교육 강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발돋움 하고 있으며, 자연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시설 환경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교육과정운영

(들판달리기, 뒤뜰야영, 텃밭 가꾸기, 생태연못장, 체험학습장 운영, 숲속산길 오르기),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학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학교주변 환경이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공장이 없는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 적용에 적합하며 기존의 자구 노력이 진행되어 벤처마킹 대상 학교로 알려져 충분한 발전과 보급을 할 수 있는 학교이기에 김해 시내 도처에서 전입 해오기 위한 문의전화가 빗발친다.

◎ 자랑거리2 : 숲속 산길 오르기를 통한 고운 심성 기르기

숲속 산길 오르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결투의 장이다. 10시 40분, 고요한 정적을 깨고 음악 방송이 흐른다. 울망졸망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하나둘씩 모여든다. 밝은 햇살 함박 머금은 아이들은 자연을 벗삼을 기세로 덤벼든다. 스트레칭 체조로 간단히 몸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돈 후 다람쥐로 변신한 용산 어린이들은 곧 바로 금동산 뒷자락 숲속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5, 6학년 아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목표점을 저 멀리 세워두고 출발선상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 디딘다. 2교시를 마친 후 용산어린이들은 매일 매일 숲속 산길을 오른다. 총 10코스까지 배정된 숲속오르기 코스를 아이들은 자신의 건강과 체력 상태를 고려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숲속 산길 오르기는 또 다른 영어 단어 학습장이다. 곳곳에 영어 학습장이 나무에 펠터이며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잠시나마 쉬어가는 아이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의욕을 불러 일으킨다. 교실에 도착하면 자기 성취목표 기록장에 오늘의 도달 코스와 자신의 기록 단축 여부를 기록하여 자신의 체력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는 의사가 되기도 한다.

숲속 산길 오르기는 자연을 노래하게 한다. 봄에 간드러지게 피어 오른 진달래 한 잎을 따서 화향(花香)에 흠뻑 취해 꽃향기를 노래 불러보고,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칙덩굴을 헤집어 칙뿌리를 뽑아내면 가루침에서 묻어나는 신토불이의 향마저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한방 효과가 되어 돌아온다. 짙레꽃 부끄러운 꽃잎을 살포시 내밀고 고사리 손으로 살짝이 새순을 꺾어내어 껌처럼 오물오물 씹어보면 봄내음이 입안 가득 촉춘다. 이름모를 풀잎과 꽃을 보면 여기저기 쏟아지는 질문에 선생님들은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는 숲속 산길 오르기가 진정한 사제 동행의 사도를 걷는 것 같아 마냥 즐겁기만 하다.

숲속 산길 오르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하는 배움의 장이다. 매일 숲속 산길을 오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책에서 본 것을 만지고 익히며, 때로는 몸으로 나타내며 관찰하고 탐구한다. 흰색과 보라색의 청아한 꽃들은 흙속에서 감자를 낳고, 붉은색 나뭇가지에 산딸기 열매도 소담스럽게 맺혀 있음을, 풀썩이는 아기 염소들,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 때로는 유유히 때로는 황토 빛깔 물살의 위엄을 과시하는 낙동강에서 우리는 자연을 배운다. 그리고 숲속 산길 오르기를 마치고 내려와 마시는 우유 한모금은 천하제일진미에 비할 바가 아니다. 힘든 친구들의 손을 맞잡고 오름 속에서 협동과 우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고, 교실에서 함께 나누지 못한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 진정한 학습의 장이 된다.

숲속 산길 오르는 학생들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도 한다. 숲속 산길을 오르는 아이들에게 친구의 우정과 협동심을 함께 배워가는 사랑의 공간이기도 하다. 꽃앞으로 친구 머리에 핀을 만들어 달아 주기도 하고, 여름이면 길가에 들성들성 자라난 산딸기를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함박웃음을 함께 터뜨린다.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다면 서로 손 맞잡고 오르고, 힘들어 하는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파이팅을 선사한다. 넘어진 동생이 있다면 누구랄 것도 없이 따뜻한 손을 맞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그야말로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따스한 세상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왕따’라는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외계어가 된지 오래다.

숲속 산길 오르는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닌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가족 행사이다. 매일 매일 숲속을 오르는 아이들에게 1년에 두 번 가족과 함께 하는 숲속 산길 오르기 행사를 개최한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아이와 선생님만 함께 하는 곳이 아닌 교육을 책임져야 할 3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 주말이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와 교육의 여건이 어떠한지 궁금해하며 학교문을 자연스럽게 드나든다. 이에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학기에 한 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숲속 산길을 오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는 가족 행사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

용산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이 숲속 산길 오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삶의 용사 양성과 자연을 배우고 노래하는 맑은 심성의 어린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학교교육의 장소로서 사랑을 꿈꾸는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명품 용산초등학교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이다.

◎ 자랑거리3 : 학교 특색교육을 통한 명품 용산 가꾸기

학교특색 교육활동(외국어교육 및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꿈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생 주 3회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영어 말하기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와의 Co-teaching 을 통한 수준별 학습 • 1~2학년은 파닉스 중심 별도 교재로 담임교사와 원어민교사 팀티칭 수업, 3~6학년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담임교사와 원어민교사 팀티칭 수업 • 워크북을 활용하여 복습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일반학교보다 + 102시간 운영으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하오! 다시골에서 듣는 중국어 말하기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 원어민 강사 초빙 5·6학년 주 1시간(필수) 1~6학년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강(선택) • 중국어 능력신장 및 외국인과의 간단한 대화 나누는 능력 기르기 • 1~6학년은 희망아동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능력 신장 • 실생활 회화중심의 중국어교육 실시 ➔ 교육과정 전학년 +68 이상 운영으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라대 교수와 함께 하는 전문가 초빙 학습(특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학년 특별활동(전연염색, 경제, 환경 등) • 전공교수와의 다양한 체험활동 • 매월 4주 화요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신라대 교수 6명 전공분야 학년별 직접 지도 ➔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복지학생들에게 체험활동 제공 		
자연체험학습을 통한 기초체력 및 인성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학습장 10곳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연못장, 동물사육장에 교과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살아요! - 토론 학습, 어린이 회의도 숲 속 전체 및 모듬체험장에서! - 골프 교육장에서 전학년 주 1회 수업 실시 ➔ 교과연계 자연체험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속산길오르기·돌관달리기를 통해 기초체력 증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회 10:40~11:20(40') 숲속산길 및 중간 달리기 실시 - 연 2회 숲속산길오르기 및 용산가족 달리기 대회 개최로 '다함께 건강을' ➔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복지학생들에게 체험활동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 흘리며 배우는 자연 학습(1인 1텃밭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의 식물을 돌보며 '인내'와 '생명의 소중함' 을 배워요. - 건강이 쑥쑥, 숲 속에서 체력단련 기구·민속놀이와 함께 하는 운동 ➔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농사 체험활동 제공 		
방과후학교를 통해 특기·소질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0명여 강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영어 기초, 영어 심화, 영어 영재, 논술, 수학, 중국어, 국악, 컴퓨터, 골프, 피아노, 한자(전교생 무료) ■ 연 2회 방과후학교 수업공개와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중국어	국악수업	영어 영재	미술

창원 삼계초, 꿈나르미 학교를 향한 三溪삼계 三技삼기 三-Up삼업



노 현 영
창원 삼계초등학교 교사



01

1. 반짝반짝 빛나는 경남교육 1번지, 우리 학교 이야기

노거수들이 울음창창한 삼풍대 공원 옆 아늑하게 자리 잡은, 우리 마을 모든 아버지의 모교 삼계초등학교는 마흔 여덟 해의 긴 세월을 겪으며 무수히도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가. 독서교육 1번지 우리 학교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학교는 독서교육에 중점을 두고 큰 학교 작은 도서관이 가지는 맹점을 극복하고자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독서교육 부문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으뜸학교 인증 등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큰학교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희희낙락 고무읽기!’라는 주제로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독서·논술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초등학교로는 전국 최초로 『KBS 도전 골든벨』을 녹화·방영하였다.

나. 교육과정 1번지 우리 학교

2010년부터 우리학교는 교과부 요청 『경제교육 시범학교』운명을 통해 현재 우리학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수정·보완하여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오고 있다.

시범학교 1차년도 운영을 바탕으로 올해는 교과부 요청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경제교육)』와 창업진흥원 지정 『청소년 BizCool』운명을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전래동화와 전래놀이 중심 경제개념 익히기 활동, 창업 동아리를 통한 기업가 정신 기르기 활동,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알뜰장터 운영을 통한 경제 체험 활동, 온 가족이 함께하는 메아리 가족 봉사단을 통한 경제 나눔 활동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학교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이다



02



01 운동하는 학교 독서 운동회
02 책마루 도서관 활용

다. 사교육비는 줄이고↓, 학력은 쑥쑥↑

2010년부터 교과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학교는, 대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재정적·물리적 여건의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여 신뢰받는 학교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인턴교사와 본교교사가 함께 노력하는 ‘학력터발’ 프로그램¹⁾ 및 학생들이 안전하고 흥미롭게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2. 꿈나르미 학교를 향한 三溪(삼계) 三技(삼기) 三-Up(삼업)

2011년 우리학교는 ‘새 판’을 짜고 있다. ‘메아리Echo²⁾가 있는 Happy Dreaming 삼계교육’을 슬로건으로 ECHO교육목표를 통해 ‘알찬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삼계만의 2011. 특색교육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가. 1技, 합창을 통한 情-Up

情性を 기르기 위해 우리 학교는 노래를 그 매개로 삼았다. 함께 부르고, 연주하고, 듣고, 만드는 활동이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모아진 메아리들은 합창단, 합주단으로 조직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사업명	추진 내용	사업명	추진 내용
함께 부르는 노래	이달의 동요 선정/교내독창대회	메아리 합창·합주단 운영	방과 후 수업 운영
함께 연주하는 노래	1인 1악기 / 작은 음악회		교육청 주관 합창·합주대회
함께 듣는 노래	등교시간 / 급식소 음악 방송		교내·외 연주활동
함께 만드는 노래	반가 / 작곡경연 대회		방학 중 합창·합주클래스

나. 2技 운동을 통한 體-Up

학생들의 體力를 증진시키고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학교는 다음과 같은 體-U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1) 집터에 깔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텃밭의 의미로 ‘학력터발’이란 늘 가까이에서 돌보고 가꾸어 학력의 싹이 움트고, 자라고, 다져지고, 키워져 온전하게 돋움 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통칭
- 2) ECHO(메아리) : Elite(실력), Character(인성), Health(건강), Originality(창의)의 4가지 교육목표의 첫글자가 모여 만들어진 학교 브랜드로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울려 퍼져 가던 소리가 산이나 절벽에 부딪쳐 되돌려오는 메아리’처럼 학생·학부모·교사 및 지역사회에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져 나옴을 의미함

03



04



03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사업설명회

04 메아리 합창단



사업명	추진 내용	사업명	추진내용
학생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아침을 시작하는 달리기 또는 걷기	교내·외 체육대회 참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즐넛기를 통한 1080 건강운동 강화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참가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실시		교육장기 수영 대회
	학급별로 함께 하는 운동 실시		교육장기 육상 대회
학교 스포츠클럽	주간 체육 운영 (학년별 주 1회 20분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참가 (즐넛기, 축구)
	1인 1운동 즐기기(스포츠 클럽 가입)		학교 간 자매결연 체육대회

다. 3枝 독서를 통한 知-Up

올해 우리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과 ‘책읽는 사회문화 재단’이 함께 추진한 ‘책날개’ 사업 학교로 선정되어 ‘책날개 펼쳐 달고 힘찬 출발,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멋진 책날개 입학식을 하여 9시 뉴스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우리 학교의 올해 知-Up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추진 내용	사업명	추진내용
더불어 책마루	학생 더불어	더불어 책마루	지역사회 더불어
			회원내서도서관 이동수업 실시
			마산도서관/새마을문고 협력사업
	학부모 더불어	교육과정 더불어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도서바자회
			독서논술 교재, 교육과정 활용
			‘전래동화와 우리 경제 이야기’ 교재 개발/활용
더불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독서교육	독서관련 창의체험활동 운영	
		독서관련 각종 대회 참가	
		독서관련 행사실적, 보도자료 제출	

3.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 학교의 이야기는 오늘도 ‘~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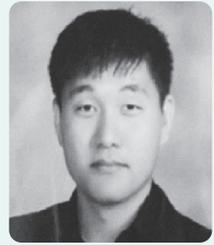
2011년에는 양성평등진흥원 지정 『양성평등 선도학교』, 경남교육청 지정 『흡연 예방(금연) 솔선수범 학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보석같은 학교』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모두가 학생들의 보다 질 높은 교육활동을 위한 물리적·재정적 밑거름이 되고, 메아리 교육과정에 하나하나 잘 녹아나 ‘메아리Echo가 있는 Happy Dreaming 삼계교육’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름은 바뀌었지만 옛 마산의 터줏대감이자 경남교육 1번지 우리 학교, 삼계초등학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명품 꿈나르미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학교의 이야기는 오늘도 ‘~ing’.



05 알뜰장터
06 금연 선포식

풍호명품제와 재능기부자와 함께하는 풍호체험활동



권성훈
창원 풍호초등학교 교사

1. 특색 교육 활동의 필요성과 시작

본교의 교육과정 목표는 미래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능력 있는 어린이 육성입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통성이 있고, 특색 있는 학교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은 무엇인가 풍호초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힘을 모아 여러 차례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풍호명품제와 재능기부자 활용을 통한 체험 활동이 올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우리 학교의 준비

가. 본교의 특성화 교육활동이 독서의 생활화이기 때문에 독서활동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으며 영어 학습실 구축, 토킹 센터 설치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러한 시설을 사용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나. 학교 주변에 웅산, 풍호 공원, 목재 체험관, 드림 파크 등 다양한 자연 체험 시설이 있어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진해 생활 체육 협회 및 진해 안젤루스 합창단 등 다양한 인근 시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활동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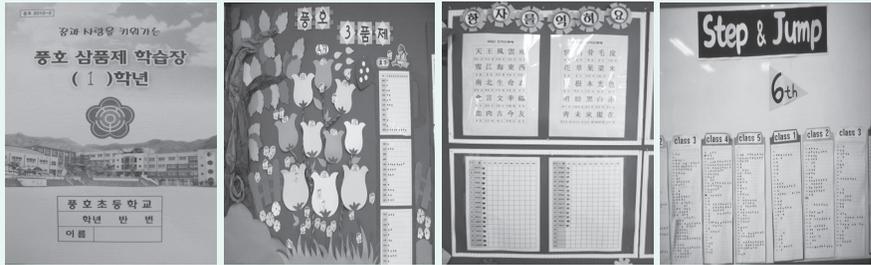
3. 우리 학교의 올해 특색 교육활동



4. 주요 추진 내용

가. 풍호명품제(독서 능력 · 한자 능력 · 영어 능력 · 예능 특기 능력 인증)

- 풍호명품제 학습장 제작 및 환경 구축(교실 환경 구성, 복도 토크 센서 설치, 도서 구입 등)



풍호명품제 학습장 교실 환경 구성 한자 인증 내용 게시 영어 학습실 현황판

- 풍호명품제 활동내용

- 독서 능력 인증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학년	급수평가기준척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1~6 학년	10권	20권	30권	40권	50권	60권	70권	80권	90권	100권
	읽고									
	독서기록장 1개 쓰기	독서기록장 2개 쓰기	독서기록장 3개 쓰기	독서기록장 4개 쓰기	독서기록장 6개 쓰기	독서기록장 6개 쓰기	독서기록장 7개 쓰기	독서기록장 8개 쓰기	독서기록장 9개 쓰기	독서기록장 10개 쓰기

- 한자 능력 인증(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학년	급수평가기준척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1~6 학년	5개 이내 정답	6~10개 정답	11~15개 정답	16~20개 정답	21~25개 정답	26~30개 정답	31~35개 정답	36~40개 정답	41~45개 정답	50개 정답

- 영어 능력 인증

partner ⇒ little master ⇒ teacher 의 단계로 인증을 받고 인증 결과를 단계판에 표시

- 예능 특기 능력 인증

줄넘기, 달리기, 노래 부르기, 합주 활동 인증을 받고 인증 결과를 단계판에 표시

나. 재능기부자와 함께하는 꿈나래 풍호체험활동

- 교육과정과 연계한 외부 강사 선정(재능 기부자)

• 학교 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재능 기부자 선정

순	구분	성명	역할	기간	비고
3	줄넘기 강사	000	학년별 줄넘기 지도	2011.03.01 ~ 2012.02.29	생활체육협회강사
4	문화 예술 강사	000	음악 시간의 국악 관련 분야 수업(연간60시간)	2011.03.01 ~ 2011.12.31	문화예술원강사
5	태권도 강사	000	체육 시간 태권도 기본 동작 지도	2011.03.01 ~ 2011.12.31	태권도 사범
6	합주(바이올린)강사	000	음악 시간 바이올린의 기본 연주 지도	2011.03.01 ~ 2011.12.31	특기적성 강사
7	합창 강사	000	음악 시간 합창의 기초 지도	2011.03.01 ~ 2011.12.3	학교자체 선정

• 관련 수업 시수 순증을 통한 활동 시간 확보

- 체육 수업시간 6시간 증배
- 음악 수업시간 4시간 증배

• 재능 기부자 활용을 통한 전 학년 체험 활동 실시 예

월	학년	내용	교과	비고	월	학년	내용	교과	비고
3	3학년	현악 합주 체험	음악	세부 일정은 활동별 세부 계획 참고	9	3학년	줄넘기 체험 활동	체육	세부 일정은 활동별 세부 계획 참고
		합창 체험 활동	음악						
		줄넘기 체험 활동	체육						
	4학년	현악 합주 체험	음악						
		합창 체험 활동	음악						
		줄넘기 체험 활동	체육						
	5학년	현악 합주 체험	음악						
		합창 체험 활동	음악						
		태권도 체험 활동	체육						
	6학년	현악 합주 체험	음악						
		합창 체험 활동	음악						
		태권도 체험 활동	체육						
	5학년	문화 예술 강사 지도(국악)	음악						

5. 예상되는 교육적 효과

- 가. 독서 습관 형성, 글짓기 능력 향상, 어휘력 증가 등 기본 학습 능력이 증가하여 학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 나. 활동을 통한 다양한 특기 신장이 이루어져 진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 다. 학습의 생활화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길러져 평소 어려워하는 교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며
- 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인내심, 창의성,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정한글교실」운영



김 선 희

의령 지정초등학교 교사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예!”

“1번, 자전거.”

“2번, ... ”

“잠깐만에, 연필심이 와 자꾸 빨라지노?”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받아쓰기 시간이지만, 오늘따라 김차임 할머니는 많이 긴장하셨나 보다.

“크크크.”

이 처럼 도서실에서 들려오는 도서도우미 선생님과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웃음을 지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본교는 작년부터 ‘지정한글교실’의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의 기회가 없어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서툴거나, 멀리 이국땅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의 생활에 활력을 찾아주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 되었다. 수강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다수가 1930년대에 태어나셨으니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세대들이라 할 수 있다.

작년, 한글교실 수강생들이 ‘지정한마당’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 한 사람씩 차례대로 동화책 읽기를 선보였다. 할머니들의 무대는 큰 인기를 끌며 그 간의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었고, 연말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이수하신 8명의 할머니들께서 자랑스러운 한글 수료식을 가져 다 함께 감동을 나누기도 하였다.

올해도 한글교실 입학원서를 받아보니, 10명의 할머니들께서 참여를 희망하셨다. 지난해 이곳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주위 친구들을 더 모시고 온 것이다.

3월 10일 개강식 후 교장, 교감선생님과 가졌던 다과회에서 이번이 첫 수강인 한 할머니들께서는, “내가 한글을 몰라서 우리 손주들한테 부끄러웠는데, 이래 학교에서 글을 가르쳐 준다 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다.

또, 지난해에 이어 재수강을 하시는 박점선 할머니께서는, “지정한글교실에서 글을 배우고 난 뒤로 길가에 간판도 읽을 수 있고, 물건에 쓰인 글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이 좋은 것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정한글교실은 매주 수, 목요일 도서도우미 선생님과 한 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다. 파랑색 책가방에 파랑색 필통, 잘 깎여진 연필 세 자루, 어느새 줄어든 지우개와 제일 중요한 교재를 꼼꼼히 챙겨 들고 집을 나서신 늦깎이 신입생 할머니들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학교로 향하신다. 지각생은 아무도 없다. ‘잘 한다’는 한마디 칭찬에도 아이들처럼 너무 좋아하시며, 더 잘하려고 연습까지 해 오신다.

목 마르실까봐 차라도 한 잔 드리려고 하면, “선생님, 괜찮습니다. 우리 공부할 시간 줄어드니까 마실 거 안 줘도 됩니다.” 하시며 얼마나 대단한 열성을 보이시는지!

요즘처럼 좋은 교육환경에, ‘아무 걱정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부모님의 관심과 뒷바라지를 뒤로한 채, 그토록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요즘의 아이들이 한글교실 할머니들을 본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을 텐데…… .

올해 본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번에는 학교 정문 앞 경로당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시는 할아버지들을 학교로 모셔볼까 싶다.

“내가 반장이니까, 잘 따라 해라! 하나! 둘!”

“셋! 넷!”

“하하하! 하하하!”

복도가 시끌벅적한 걸 보니 할머니들께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 인가보다. 지정한글학교가 할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글자’ 만은 아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신 배움의 기쁨과 그 속에서 나오는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도록 도와 드리는 것, 그 속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넘쳐 나오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다. 유쾌하게 터져 나오는 그 분들의 웃음이 오늘처럼 내일도, 모래도 항상 들려오기를 소망한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명품학교 김해분성고등학교



정재기

김해분성고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김해분성고의 비전은 꿈과 희망을 키우는 매력 있는 명품학교다. 우리학교는 좋은 학교로서의 특성과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심고자 늘 노력한다. 명품학교에는 정말 보석과 같이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가진 학생과 잘 만들어진 양복같이 행동이 세련된 학생, 자신만의 향기와 빛깔을 가진 학생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도전하는 학생과 나뭇대로의 울퉁은 철학이 있는 학생이 많다. 동부경남 신흥 명문학교의 자부심으로 김해분성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걸맞은 각종 교육활동으로 미래를 이끌 교양 시민을 기르고 있으며, 몇 가지 명품교육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생활이 과학이다 - 과학중점학교 운영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한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공계열 희망 학생에게 과학과 수학적인 소양을 충분히 함양시키겠다는 국가적인 취지에 발맞추어 우리학교는 과학 교과교실제, 학생자율 선택형 비교과 체험활동의 운영, 전자책 출판물 통한 유비쿼터스 수업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하게 하여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가. 과학교과교실의 마련 및 운영

과학교과교실에서는 전자칠판과 테블릿 PC 26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교과서 대신 학생들이 테블릿 PC를 이용해 교사와 수업을 진행하며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험 데이터 처리 및 결과발표를 한다. 또한 html파일로 전자책을 과학중점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하여 PC 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해당 과학수업을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새로운 장비에 어색해 하던 학생들은 신세대답게 곧 능숙히 테블릿 PC를 다루고 교사와의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나. 다양한 비교과 체험 활동을 통한 수학·과학적 소양의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되면 1학년 학생들은 매주 1강좌씩 새로운 선생님을 찾아 이동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준비한 11명의 수학 및 과학 팀티칭선생님들은 각각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이한다. 학생들은 매주 새로운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수학 및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의 실험 활동도 매주 더욱 능숙해지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비교과 체험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산 및 경남 전역의 과학시설 견학과 교내의 과학행사의 참여도 준비되어 있다. 이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 비교과 체험학습 팀티칭 목록 〉

순	영역	학습주제	지도교사
1	수학	종이접기를 활용한 정다각형의 이해	조미정
2	컴퓨터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방법 및 자료 제작법	김순란
3	화학	수성 사인펜의 색소 분리	김정미
4	화학	각종 지시약을 활용한 액성 구별	김희진
5	물리	각종 기구를 활용한 관성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실험	박미현
6	물리	시간기록계를 이용한 종이테이프 타점 분석	소인호
7	지구과학	단열 변화 실험 새롭게 접근하기	송경훈
8	생물	관찰과 마인드 맵	오수권
9	수학	종이접기 속에 숨겨진 수학	윤선화
10	화학	과산화수소수의 분해 반응	진정이
11	생물	눈의 비밀	정송은

다. 수학·과학 동아리 활성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의 과학동아리 조직을 적극 권장하여 실험실을 적극 개방하고, 동아리 운영 예산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동아리를 중심으로 각종 과학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교내 과학 동아리 발표대회도 개최하며 활동결과는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011학년도 수학·과학 동아리 현황 〉

영역구분	동아리명		수
수학영역	수학사랑, m, 수학퍼즐동아리		3
과학영역	S.P.Y	우수 학생으로 구성된 과학 심화 동아리	5
	지구과학심화탐구반	지구과학 심화실험 및 현장탐구활동 동아리	
	RnE파라잡기	과학 탐구 동아리	
	지구과학영상반	지구과학 영상 교육 동아리	
	화학실험반	화학 실험 탐구 동아리	

3. 입학사정관제 내 손으로 준비하기 - 진로와 진학이 보이는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성 등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자아정체감을 키우고,

01



02



03



- 01 유비쿼터스 수업
- 02 창의적 체험활동1
- 03 창의적 체험활동2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들을 탐색하여 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과 이력관리, 맞춤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커리어 파일 관리를 통한 이력관리

학생들이 이력관리를 준비하는 커리어 파일명은 ‘준비하는 자가 세상을 주도한다’이다. 학생들은 이 파일 속에 자신의 진로 검사 결과표를 비롯하여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해 노력했던 각종 활동의 결과를 모아두고 있다. 그리고 교내외 활동에서 자신이 거두었던 성과들도 함께 보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또 가끔 커리어파일 제작대회도 개최해 우수한 파일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축제 등의 행사에서 전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면서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나. 진로검사 및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한 진로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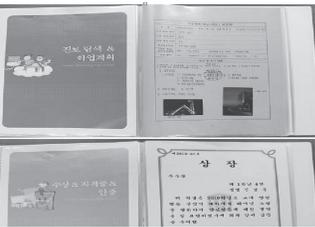
DADT-h종합능력검사, 학습기술검사, 직업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 각종 표준화 검사들은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높여 올바른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직업과 사회인사를 초빙하여 직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도록 하여, 스스로 진로에 대한 자발적 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 대한 탐방도 학생들의 진학의지와 성취동기를 높여 주었다.

< 2010년도 진로 직업교육 초청강사 명단 >

순	진로·직업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1	의학	김진원	한사랑병원장
		차남현	가야대 간호학과 학과장
2	교육	손정현	김해분성여고 교사
3	행정·공무	박금석	경남도청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사무관
4	금융	진정식	삼계동 북부농협지부장
5	금속·기계·기능	안인모	마산대 로봇자동학과 교수
6	경찰	김대정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장
7	자연과학	이상현	김해전문대 천문대장
8	컴퓨터	강홍식	인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9	체육	강병일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10	음악	김성진	인제대 음악학과 교수
11	법조	정장현	정장헌법무사 사무소
12	건축	이장민	인제대 건축학과 교수
13	군인	서정욱	경남·울산 재향군인회 안보부장
14	조리·음식	배대석	은성제과제빵학원장
15	방송언론	윤성효	오마이뉴스 기자 부산경남취재팀장
16	일반사무	황보형	동양생명 경남사업단장
17	여행	박준근	창원시 하나로 고속관광 대표이사



04



05



06

- 04 직업인 강의- 의학
- 05 커리어 파일 관리 모습
- 06 수도권 대학 탐방

4. 호날두야 물렸거라 - 제2회 분성고학생회장배 교내 축구대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3월이 되자 점심시간에 학생들은 삼삼오오 운동장 가에 몰려들었다. 교내 십여 개의 축구 클럽이 벌이는 학생회장배 축구대회를 보기 위해서였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바쁜 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축구대회는 학교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대회는 학생회의 주최로 학년 구분 없이 총 12개의 동아리 팀이 참가해 대진표를 짜서 점심시간마다 한 게임씩 진행하여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동아리 이름은 ‘맨유’, ‘밀란’, ‘독든 햄(토틀넘의 패러디)’ 등의 명문 축구클럽 이름을 빌려온 것도 있었고, ‘재수금지’, ‘가야대’ 등의 대학관련 이름도 있었으며, ‘분돌이’, ‘술거’ 등의 창의적 이름도 있었다. 또 총 20여만원에 해당되는 상금도 걸려있어 게임에 흥미를 더하여 주었고, MVP와 득점왕에게도 각각 상금을 수여하였다.

5. 맺음말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꿈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꿈은 인생에서 달콤한 사탕 같은 것이고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는 노력이 진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자라고, 학창시절은 바로 그러한 꿈에 충실할 때인만큼, 김해분성고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써 나갈 것이다.

07



08



09



07 축구대회 1

08 축구대회 2

09 축구대회 3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방법도 배워야 하나요?



변 경 오

한국학습클리닉창원센터 소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 라는 말이 있다. 자녀의 공부에도 이 말이 적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이다.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실제 이 말대로 실천하는 부모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이를 물가에 내어 놓고 기다리면 아이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과연 혼자서 공부하게 두고 기다리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굶게 되기 때문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또한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요즘에 무작정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치길 기다린다는 것은 현명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빨리 찾는 것이 현명한 부모일 것이다.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가르쳐라

아이는 분명 아이이다. 즉, 아직 생각과 경험이 부족하여 부모가 가르치고 지도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공부에 대한 동기와 공부에 대한 유능감이 생기게 된다. 특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부족한 아이들은 좋지 않은 공부방법이나 습관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공부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에 필요한 능력을 살펴보면 학습 전, 중, 후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습전단계에서는 자신의 학습특성 이해와 학습동기, 학습에 대한 유능감, 자기조절력이 필요하다. 학습중단계에서는 학습전략요인으로 핵심과약전략, 조직화 전략, 기억전략, 시간관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후단계에서는 시험전략, 시험불안조절, 자부심 그리고 진로설정 등이 있다.

초등학생의 사고발달을 고려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학습전단계에 치중하고 약간의 전략이 가미되는 것이 좋다. 특히 학습 동기와 유능감은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초등학생 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공부에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것보다 공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올바른 공부습관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중학생의 경우 학습전략이 부족하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능동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중학생 시기에 적절한 학습전략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공부방법을 배워 습관화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고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 후단계인 시험전략, 시험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와 자기관리 방법을 배우고 명확한 진로설정을 한다면 성적향상과 대학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법만 알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나?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무엇이든 익숙하게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견뎌낼 때 비로소 성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교육학자 헨드릭스(Howard G. Hendricks)는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무의식적 무능 단계 : 새로운 것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무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의식적 무능 단계 : 새로운 것을 배움에 따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된다.

의식적 유능 단계 : 배우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무의식적 유능 단계 : 새로운 역량을 완전히 체득하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의식적 무능 단계’로 공부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실천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심리적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처음이라 서툴러서 옛 방법보다 오히려 새로운 방법이 시간 낭비로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면 공부방법을 완전히 체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정말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또한 아이 혼자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능동적 학습자

능동적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아이일 것이다. 아마 부모님이 바라는 우리아이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공부에 관해서 전적으로 아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바로 초인지 전략이고 그러한 초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이 위에서 언급한 4단계과정이다.

우리아가 이러한 능력과 과정을 이미 알고 있다면 생각하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아이일 것이다.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초인지 전략과 학습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자(他者), 축복인가? 지옥인가?



김 주 영

진주 진성초등학교 교감

1. 삶의 본원으로서 타자(他者)

학교 살이는 3월이 신년이다. 그 신년이 시작되고 한참 지나 푸릇한 오월이다.

근무지를 옮기고 만나게 되는 타자. 기대와 설렘이 있고 긴장도 있다. 특히 수직적 관계에서는 자못 더하다. 혹 전해들은 타자에 대한 평가도 살아보면 달라진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경영자, 동료, 더해서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세상살이 폭폭함을 진하게 안겨준다. 이쯤하면 불가에서 이야기한 타자로 인한 고통-원증회고(怨憎會苦), 애별리고(愛別離苦), 구부득고(求不得苦)-을 절절히 수궁하게 된다.

더욱이 마몬이 득세하는 지금의 세상살이, 속마음을 털어 놓을 타자가 없다한다.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자식도 모르니 범칭으로 타자야 오죽하랴! 그런데 이를 어쩐다. 사이의 존재(人間)로서 인간은 결국 실존의 전제로 타자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너 없는 나의 존립이 가당키나 한가? 그렇다 쳐도 그 타자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고뇌하고 오열한 적이 부지기수인 것을, 아 물론 타자가 때로는 삶의 희열을 선물하기도 했겠지만 말이다. 오묘할 손 타자(他者)이다. 이참에 타자를 상량 거리로 삼아 보는 것도 뜻이 있지 않을까?

2. 타자는 나의 지옥

타자는 나의 존재 근거이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타자는 나의 지옥일 뿐. 사르트르의 입장이다. 어찌해 사르트르(Sartre)의 타자 이해는 그렇게 무채색으로 칠했기만 할까?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라는 대가의 언명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필자의 감양이 부족하고, 만용을 부려서 일차원적 이해라도 시도해 볼 수밖에(혹 사르트르 전공자께서는 무식의 용감을 용서하시길). 자, 조금 풀어서 살펴보자. 인간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숙명이 있다. 그런데 욕구는 무엇이며 욕망은 무엇인가. 조금 느슨하게 구분해 보기로 하자. 욕구(need)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이를테면 식욕, 수면 욕, 성욕이 이에 해당할 터이다. 반면 욕망(desire)이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바라는 것,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지위, 재산 등)들이 묶여질 것이다. 뜬금없는 욕구와 욕망이 타자와의 관계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인간이란 욕구와 욕망의 실현으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음을 불문가지인데, 이를 충족시켜줄 대상이 풍요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획득함에 승패가 갈릴 것이며 결과에 따라 나의 행복이 극명히 나뉘어 질 것이다. 오호라, 거참 곤란할 일이라. 타자가 없이는 나의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 타자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는데 경쟁하는 대상일 줄이야. 사르트르(Sartre)에 의하면 현존에서 실존을 지향해야 될 자유가 저주로 주어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 했는데, 타자의 이 역설적 존재가치, 인간의 역사를 점철해 온 온갖 부스럼딱지는 이에서 말미암는다 하면 지나친 단순화일까?

3. 인정(認定)의 상대로서 타자

결국 타자란 그런 것인가? 적잖이 곤혹스럽다.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자. 헤겔(Hegel)의 타자 이해를 끌어 들여 보기로 한다. 헤겔(Hegel)은 인간은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물을 제작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 하는 것 같다. 개인이 가진 달란트(Talent)의 제약으로 모든 욕구 충족의 대상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래 그건 사실이지. 그런데다 그 생산물을 향유하는 건 현실의 권력관계에 따라서 좌우된다. 결국 생산물에서 소외 된 타자는 자기의식, 자기각성을 통해 상대에게 주체성을 인정받으려 시도한다. 허나 그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것인가? 헤게모니(Hegemony)를 담지(擔持)한 타자는 인정을 거부하고 그 결과 타자 자신도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 불행한 일이다. 타자의 불인정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존재 지반을 허물어 버린다는데, 그리 본다면 헤겔에 있어서 타자란 자신의 주체성을 보증 받는 대상이 아닌가? 즉 타자가 없이는 나의 인간됨을 확보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타자에 대한 상호인정을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글썽다. 뭘 인정할 알맹이가 있어야지. 타자에게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위가 요구되는 것이다.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부여 받은 달란트를 수련해야 할 당위가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자 서로가 주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오호라! 타자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절차탁마라는 큰 숙제가 있을 줄이야.

4. 도상(途上)위의 존재로서 타자

타자 이해에 관한 사르트르나 헤겔의 견해도 특정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2차 대전 이후의 허무, 자본주의 초창기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 그들의 타자 이해에 대한 밑천일 것이다. 인간의 삶에 역사성이 그만큼 중요함을 되뇌이게 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부분적 이해에 상당하다는 것을 구구절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실에서 조우하는 타자는 인정의 대상 혹은 지옥, 극단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아마 맥락에 따라 절충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야스퍼스(Jaspers)는 인간은 도상(途上)의 존재라 했다. 인간에게 완성태는 없다. 다만 과정적인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다.

바야흐로 봄이 무르익어 간다. 만물이 생명의 약동을 한껏 표현한다. 학교 살이도 새로운 각오로 넘실댄다. 새로이 만난 인연의 이름, 타자. 그들에게 완성태를 기대하지 말자. 타자 또한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움직임일 뿐. 타자에게 햇살처럼 따뜻한 시선을 담아 보낼 일이다. 타자를 축복으로 만들어 가는 의지가 새삼 절실해지는 시절이다.





독서는 정신의 근육을 단련하는 길



백 중 기
창원 용남고등학교 교장

30년 이상의 일반행정 공무원 생활을 거쳐, 대학 총장과 고등학교 교장이라는 흔치 않은 이력을 살아오며, 교육이란 ‘사고의 유연성과 생각의 힘을 키우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옛날 우리 선인들은 ‘만권의 책을 읽고(讀萬卷書), 만리의 여행을 하라(行萬里路)’는 말씀을 하셨다. 타인의 사고와 경험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고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키우는 데는 독서와 사색만 한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공자께서도 생각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 주체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고, 생각만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편협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육체의 활동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이 늘어나야 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신의 근육이 필요하고, 이 정신의 근육을 늘리는 데에는 꾸준한 독서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도 좋은 소설,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가장 정제된 생각을, 겸손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왜 이런 값진 선물을 마다해야 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경남’ 프로젝트에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 용남고등학교도 지난 3월 17일 ‘책 읽는 학교 만들기’ 선포식을 가지는 등 도내 학교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참가하고 있다.

당장의 대학입시만 생각하면, 폭 넓은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학년때부터의 꾸준한 독서가 인성과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결국은 입학사정 관제 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대학입시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학령기의 제도권 교육 중심 모델’에서 ‘평생학습 사회’라는 새로운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조류 속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평생학습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평생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 학창 시절에 이런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사천신문에서, 제 인생의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는 김형태 은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본적이 있다.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글이었는데, 팔순이 훨씬 넘은 스승님의 글에는 청년의 힘과 역동성이 있었다. 선생님의 신선한 사고도 역시 방대한 독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이제 곧 스승의 날이다. 봄 꽃과 좋은 신간 한 권 들고 스승님에게 달려갈 생각만으로도 봄날 하루가 행복해지는것을 느낄 수 있다.



엄마 품 한사랑 도서실



천 경 립

청원 한사랑유치원 학부모

1. 유아교육의 요람

유치원 뒤 청량산 나무들이 일제히 가지개를 켜면서 연듯빛 찬란한 웃을 갈아입을 즈음 자연에 동화된 한사랑유치원 뜨락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청량산을 배경으로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운 유아교육의 요람 한사랑 단설 유치원! 더불어 살아가는 귀여운 꿈동이 110명이 꿈을 가꾸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유치원 실내·외 환경은 아이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주고 있으며, 내 아이처럼 사랑 가득 담아 지도해 주시는 교사들의 모습에서 선진 명문 유치원으로 도약한 교사들의 숨은 노력이 유치원 곳곳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2. '도서 도우미' 봉사의 보람과 기쁨

윤영일 원장님은 '2011년도 유치원 특색과제'로 책임은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독서 친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도우미 학부모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일과 직장일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는 힘들고 버거운 것이 현실이지만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쪼개어 도서 도우미 봉사를 신청해 놓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우도 잠시 학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유아독서'에 관한 학부모 연수를 연5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치원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또 하나의 보람과 기쁨으로 시작한 도서 도우미 봉사자로 참여한 자신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며 직장동료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겁니다. "나는 한사랑 유치원 도서 도우미 엄마 선생님이라고."

유치원에서 내어준 ‘도서 도우미 봉사증’ 과 ‘봉사활동 마일리지 저축 통장’ 을 발급 받고 보니, 나누어 준 기쁨이 배가 되어 고스란히 돌아오는 도서 도우미 봉사 활동은 학부모에게는 보람과 기쁨을 아이들에게는 희망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부메랑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도란도란’, ‘조곤조곤’ 책 읽기

아이들의 점심 급식 후(30분)어머니의 따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감 있는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읽은 내용을 아이와 엄마와 함께 공유하여 동화 속 이야기 주인공이 되어 보는 책읽기 활동 입니다. 시장에서 난무하고 있는 기계음 동화 대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 베개 품속에서 ‘도란도란’, ‘조곤조곤’ 들려주었던 동화속의 무궁무진한 상상 이야기를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도록 되돌려 ‘도란도란’, ‘조곤조곤’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는 동화책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할 것이며 아이들 마음을 따듯하게 데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행복한 꿈이 영글어 가길

아이들이 머물고 간 도서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화책 이야기 줄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 일곱 색깔 띠를 이루며 내 마음을 감싸는 뿌듯한 행복감을 을 느낍니다. 도서 도우미 봉사활동 시작으로 만난 엄마의 작은 행복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전달되어 맑은 웃음 가득한 유치원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모두 배웠다.’는 말이 있듯이 내 아이의 미래의 꿈이 한사랑 유치원에서 알찬 열매로 아물게 영글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얘들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선생님 사랑



최 서 연

창원 대원초등학교 2학년 5반

선생님, 참 소중한 분입니다.

선생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맑게 해 주지요.

선생님의 칭찬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에게는 엄격한 선생님,

수줍은 아이들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는 선생님.

화났을 때 선생님의 모습은 도깨비 같지만, 활짝 웃는 선생님 모습은 천사 같지요.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께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존중하게 되지요

선생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랑은 중요합니다.

선생님 사랑을 받으면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은 여러 곳에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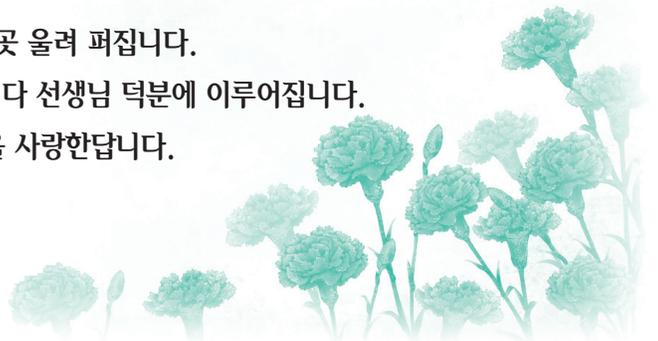
선생님의 사랑은 메아리처럼 교실 이곳저곳 울려 퍼집니다.

꿈을 키워가요, 올바르게 배워요. 이것이 다 선생님 덕분에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사랑을 받아요. 우리들도 선생님을 사랑한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사랑은 커져만 갑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호모 코레아니쿠스’를 읽고

-한국인의 한국인 습속(習俗) 낯설게 보기-



조 현 우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주무관

몇 년 전인가 심형래감독의 명작 ‘D-War’를 보러 극장엘 간적이 있었다. 당시 그 영화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나 역시 그 논란의 실체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자는 아이를 들쳐업고 간 것이었다. 보는 도중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용이 ‘영구와 땡칠이’ 정도였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스토리는 ‘영구와 땡칠이’가 더 나왔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영화를 다 본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빛과 내 지르는 감탄사 속에서 그 기립박수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런 영상을 우리 영구가 드디어 만들었구나. 한국인인 니가 정말 자랑스럽다’였다. 3류 몬스터영화를 보면서 애국심을 느끼는 것은 다소 생똥맞은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박찬호의 경기를 잠을 설쳐가며 보며 감격해했고,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성과 발표에 열광하였으며, 박세리의 골프경기에서 불굴의 한국인 상을 투영하였다. 이 뿐만 아니다. 한국사회 곳곳에서 나는 한국사회의 병을 느낀다. 교육의 서열화는 쉽사리 깨지지 않고 있으며, 화환의 숫자로 그 사람의 삶이 평가되고 창의적인 직원을 채용해놓고 교육프로그램에는 언제나 해병대캠프나 천리행군이 빠지지 않으며, 외모의 정형화로 인해 여성들은 늘 재실시되는 다이어트 속에서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고,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아버지는 기러기 신세가 되어 혼자남아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하고, 친목 모임에선 본인들의 이야기보다 자식들의 학업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가 더 화제가 되며, 명품이 없으면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 하고, 행복을 위해 결혼한 부부는 주변과의 마찰로 이혼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책의 저자는 한국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 내지는 습속(習俗)에 대하여 그의 날카로운 논평실력만큼이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집단주의, 순위경쟁, 수치화, 군대문화, 허례의식, 빨리빨리, 성형과 다이어트, 양반족보, 치맛바람, 가부장제, 조직의 전근대성, 디지털화, 명품과 짝퉁, 권위주의, 타인에 대한 미배려 등등. 현대 한국인을 나타내는 크고 작은 명제들을 낱낱이 해부하며 너무나도 한국적인 '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상을 떨쳐버릴 것을 권하고 있다.

책을 읽고 있는 내내 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지금까지 한국적인 것이 잘 포장되어 우리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만을 강요하였지만, 오히려 불편한 비판 속에서 현대 한국인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을 속속들이 발견하였을 때 나는 공감하였고, 또한 통쾌하였다. 우리는 인생의 조연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다. 고정관념으로 지금까지 조연처럼 살아온 한국인이 많을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껍질을 벗고 자유로워져야 한다. 진정 행복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도 한국적이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제주도를 갔을 때 그곳 관계자들로부터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들어갈 수 있게 인터넷과 전화투표에 참여해달라는 호소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운동은 이미 전국적이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 정말 한국인답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자연마저 등수에 넣지 않으면 진정 그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윤 소 영
창원 봉림초등학교 교사

쇼팽 혁명 : 연습곡(Etude in C Minor OP No. 12)

1810년 바르샤바, 육군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친 프랑스인 니콜라스 쇼팽과 폴란드의 명문 귀족 출신인 유스티나 크지노프스카 사이에서 태어난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 또는 피아노의 영혼이라고 지칭될 만큼 오로지 피아노를 위해 살았던 예술가이다.

그는 1817년에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워 1818년이 되던 해에 공개연주회에서 기로베츠의 협주곡을 연주하였고, 1822년부터는 바르샤바음악원 창설자인 J.엘스너에게 화성법과 대위법을 배웠으며 러시아 황제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칭송을 들을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그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 분할 통치되고 있었고 1830년 폴란드 독립 투쟁이 시작되었지만 1831년 러시아에 의해 강제 진압을 당하게 된다. 1830년 11월 쇼팽은 조국을 떠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 중이었고 이때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러시아군에게 침공 당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조국의 패전 소식을 접한 쇼팽은 슬픔에 휩싸인 비통한 마음을 음악에 담아냈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혁명 연습곡(작품 10의 12)’이며, 이 곡은 연습곡이지만 대단히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쇼팽 연습곡 혁명은 왼손을 위한 연습곡으로 마치 거친 바다의 폭풍 속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곡으로 격정적인 흐름에 거친 옥타브로 강렬한 선율을 노래한 연습곡이지만 그 속에는 조국이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한 슬픔이 담겨있기도 하다. 알레그로 콘 푸오코의 4/4박자 3도막 형식으로 구성되어 격렬하고 빠르며 절묘한 타이밍에 악센트, 그리고 힘이 느껴지는 곡이다.

혁명의 원제는 쇼팽 연습곡 다단조 OP10 No.-12이지만 곡속에 담긴 분위기가 마치 어딘가 맞서 싸우는 듯하여 혁명이라고 붙여졌으며 쇼팽은 개인적으로 부제를 싫어하여 쇼팽 후세에 ‘혁명’이라고 붙여졌다고 한다.

작품명 : 마음의 풍경



신 영 숙

- 한창원천광학교 교사
- 1993.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 (동경)
- 1995. 제5회 곰두리 미술대전 우수상(한국화)
- 1996. 부산 한국화전 (부산문화회관)
- 1997. 한국장애인 미술 협회전(서울)
- 2003. 제13회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 대전 우수상(한국화)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교육

도민 여러분!

오늘은 TV를 잠시 끄고
가족 독서 시간을
가져 보는건 어떨까요?



- 책 속에 꿈 책 너러 희망
- 북(book)적 북(book)적! 경상남도
- 함께하는 책 읽기 함께여는 희망경남
- 펼쳐요! 책속 행복 누려요! 행복 경남
- 책 읽는 기쁨 나누는 행복
- 책을 내거월에 미래를 내품에

‘책 읽는 경남’은
도민 모두가 참여 합니다.